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일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및 보험회사의 대응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마련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금감원, 방카슈랑스 부문검사 발표
건교부, 자동차보유자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
표준약관 개정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 해외보험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중국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일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및 보험회사의 대응	1
보험산업 개관	10
보험산업 환경	14
1. 해외 경제	14
2. 국내 경제	16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18
보험지표동향	20
1. 보험산업 총괄	20
2. 생명보험	22
3. 손해보험	33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44
1.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마련	44
2.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48
3. 금감원, 방카슈랑스 부문검사 발표	52
4. 건교부, 자동차보유자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55
5.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57
6.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	58
7.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60
8. 금감원,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62
해외보험동향	66
1. 미국 동향	66
2. EU 동향	70
3. 일본 동향	76
4. 중국 동향	81
통계표	83

테 마 진 단

◆ 일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및 보험회사의 대응

류건식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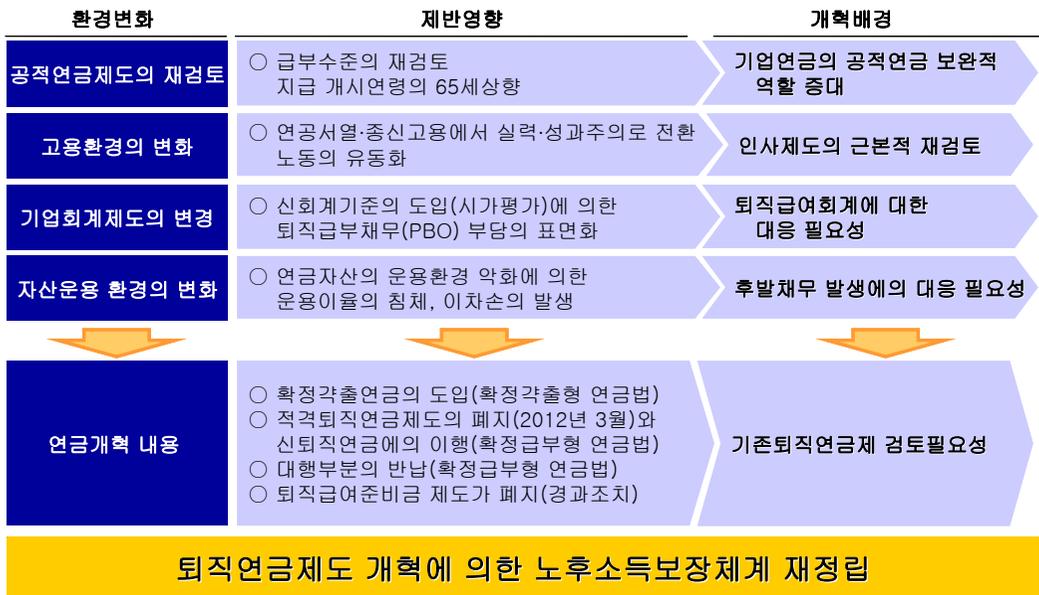
1. 일본 퇴직연금제 개혁의 과정과 배경

일본은 노동시장의 변화,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운용환경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대대적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착수,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확정각출형 연금법(DC형 연금법)과 신확정급부형 연금법(신 DB형 연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부형(DB형)인 적격 퇴직연금제도가 1962년에, 그리고 후생연금기금제도가 1996년에 각각 도입·운용되어 오다, 2001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음.
 - 즉, 2001년 10월에 확정각출형(DC형) 연금법이 시행되고 2002년 4월에 신확정급부형(신DB형) 연금법이 시행됨.
 - 이에 따라 후생연금기금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행부분을 중지하고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적격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012년 3월까지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은 공적연금제도의 위기, 고용환경의 악화, 기업회계제도의 변경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즉,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9%에서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확정각출형 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2000년 4월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퇴직급부채무부담이 표면화되기 이르렀고, 이에 기업은 퇴직급부회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근로자가 운용성과를 책임지는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일본은 공적연금의 위기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이 정비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그림 1> 퇴직연금제도의 개혁배경 및 주요내용



2. 연금제도 개혁후의 시장변화와 평가

확정급부형(DB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신타은행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확정각출형(DC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우는 대형 은행계그룹 및 증권사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기존의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 및 신타 등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연금개혁 후의 퇴직연금시장 변화

□ 기존 퇴직연금제도하의 퇴직연금시장은 신타은행과 보험회사가 양분하는 구도를 보여 왔는데, 제도 및 세분화된 시장별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함.

- 후생연금기금제도에서는 신탁은행이 계약건수, 자산잔고, 가입자수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적격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약건수기준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자산잔고 기준에서는 오히려 신탁은행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시장, 신탁은행은 대기업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1> 후생연금기금 및 적격퇴직연금의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

구분	계약건수			자산잔고			가입자수			
	FY'00	FY'01	FY'02	FY'00	FY'01	FY'02	FY'00	FY'01	FY'02	
후생연금 기금	은행	73.3	73.3	74.0	77.2	80.3	82.8	80.4	80.7	81.7
	생보	26.7	26.7	26.0	22.8	19.7	17.2	19.6	19.3	18.3
적격퇴직 연금	은행	11.9	12.3	13.2	54.7	56.6	57.8	42.6	42.6	43.9
	생보	87.2	86.9	86.0	44.2	42.3	40.9	56.1	56.1	54.7
	공제	0.9	0.8	0.8	1.1	1.1	1.3	1.3	1.3	1.4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신탁협회

- 퇴직연금제도 개혁이후 형성된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시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탁은행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
- 2003년 3월말 현재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가입건수는 15건이며, 이중 신탁은행에 가입한 건수가 12건으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수탁건수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산잔고면에서는 4.2%에 불과하며 소규모기금위주의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규약승인 건수는 1,068건, 가입자 수는 약 1,012천명, 실시법인은 3,134개사로서, 종업원 규모별에서는 규모가 작은 99명이하의 기업(점유율 58%)에서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이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약단위별로는 99명이하 기업이 규약건수 비중이 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규약을 복수의 법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표 2> 기업형 확정각출형 퇴직연금 실적(2004년 8월 현재)

구분	종업원 규모별		규약단위별	
	회사수	구성비(%)	규약건	구성비(%)
99명이하	1,811	58	270	25
100~299명	603	19	271	25
300~999명	405	13	256	24
1000명~	315	10	271	25

- 2004년 8월말 현재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기업형 확정각출형 퇴직연금규약 682건중 DCJ(三菱은행그룹)가 86건, J-PEC(三井住友은행그룹)가 82건, 손보재팬 DC증권이 67건 등으로 신규진입한 대형은행계그룹 및 증권사가 시장점유율 60.3%(411건)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기존의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 및 신탁 등은 단지 39%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은 대형은행계 그룹과 증권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표 3>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의 수탁실적 비교(2004년 8월 현재)

금융기관	구분	규약기준
日本생명	기존	107
DCJ(三菱은행그룹)	신규진입	86
J-PEC(三井住友은행그룹)		82
손보재팬 DC증권		67
NSAS(野村증권)		60
ING Principal Pensions		49
明治安全생명	기존	48
住友신탁		46
미즈호 Corporate 은행	신규진입	41
리소나 신탁	기존	41
日本第一생명		29
大和 Pension Consulting	신규진입	26

- 이처럼 대형 은행계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탁경쟁의 초기단계에서 대출을 비롯한 기존의 거래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에 반해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수탁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역마진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소극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의 니즈가 급속히 변화한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임.

나. 연금개혁 후의 퇴직연금시장 평가

- 퇴직연금제도 개혁 이후 일본의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선전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와 신탁 등은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은행·증권이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기관으로 본격 참여한 반면, 보험회사(생명보험사) 및 신탁 등은 기존 퇴직연금제도 즉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시장을 고수하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결과임.
- 시장환경 측면에서도 저금리, 주식시장 침체, 연금회계, 신제도 도입으로 연금채무(퇴직금)문제를 기업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확정각출형 퇴직연금 상품구성상 은행·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즉,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의 유지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에는 적극 대처하지 못한 반면, 은행 및 증권사 등은 확정각출형 퇴직연금 하나에만 전력투구한 결과에 기인한 바 큼.
- 이는 보험회사 및 신탁의 경우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수요예측능력이 미흡하여 연금제도 초기에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특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공동 투자교육을 실시하여 타금융기관과의 차별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를 활

용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체의 컨설팅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개별 보험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교육의 노하우 및 교육·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시장의 진출범위, 목표시장의 선정, 자사의 핵심역량 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음을 의미함.
- 또한 확정각출형 퇴직연금 시장이 경쟁방식(competition)중심으로 변화하여 과거의 퇴직연금 수탁실적 및 평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경영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즉, 기존의 퇴직연금 수탁실적에 대한 홍보 부족, 한정된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미흡, 시의적절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진출 기회 상실 등으로 은행 및 증권사 위주의 확정각출형 퇴직연금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음.

3.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일본 보험회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보험회사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을 적극 공략한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괄 서비스제공 등 운영관리업무 중심으로 마케팅을 차별화하고 있음.

- 日本생명의 경우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유지전략을,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신규시장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탁경쟁에 뛰어드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제도설계에서 가입자교육, 콜센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괄형 서비스 수탁체계로 전환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함.

- 또한 복수의 관련회사에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사내에서 업무별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마케팅 조직을 운영함.
- 목표기업별 마케팅전략을 차별화하여 대기업은 300여명의 법인영업부 단체연금 담당팀이, 중소기업은 전국 126개의 지점이 담당하며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 약 30여명의 401(K) 연금부서가 종업원 교육 등을 실시함.
- 이와 더불어 투신상품 13종류와 원금보장형 GIC상품 등 다양한 투자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관련교육 및 서비스를 타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철저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三井住友해상의 경우, 운영관리 및 상품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상호협력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직구성의 경우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40여명의 금융사업부를 설치하여 기업의 사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운영관리기관의 알선, 운용상품의 제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J-PEC이라는 전문회사를 공동설립하여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 운영관리업무, 가입자서비스, 기록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함.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가 구축된 콜센터를 이용하여 상품설명, 운용지시 및 각종조회, 투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이처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타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보험회사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괄서비스의 제공, GIC형 상품중심의 상품개발, 독립적인 운용조직의 설치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타금융기관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보는 사무관리업무 분야에 특화하여 진출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경쟁력이 운용성과에서 서비스의 질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험회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투자신탁의 역사가 일천한 일본에서는 종업원의 투자교육을 타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우위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종업원 교육 및 강사 양성 등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4. 국내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및 향후과제

국내 보험회사들은 향후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시장 수요예측 능력을 제고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퇴직연금 시장의 진입전략 수립, 차별화된 컨설팅 및 마케팅 능력의 제고,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진출계획 수립 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퇴직연금시장의 수요예측 능력의 강화
 - 확정각출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일본의 신탁 및 보험회사 등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주요원인이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예측능력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은 근로자 및 기업의 퇴직연금 니드 및 성향(선호요인 등) 파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퇴직연금시장의 수요변화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 체계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규제감독 체계의 변화에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퇴직연금시장 진입필요
 - 국내 보험회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정확하게 분석한 연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퇴직연금 시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퇴직연금 시장에 부합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연금제도 초기에는 많은 투자초기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퇴직연금 시장의 선점은 연금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경영자의 판단능력과 집중적인 경영자원의 투입 등이 신속하게 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회사의 차별화된 컨설팅 및 마케팅 능력제고

- 은행 및 증권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개인별 라이프플랜 등 컨설팅 능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종업원에 대한 투자교육 및 마케팅서비스 제공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 즉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대상기업별, 기업형태별, 근로자의 특성별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마케팅 차별성이 존재하도록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이와 더불어 국내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개하여 가되, 장기적으로는 일괄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보험산업 개관

2004년 중에 나타난 전반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단기자산의 보유비중이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보험회사가 유리했으나, 2005년에는 이러한 이점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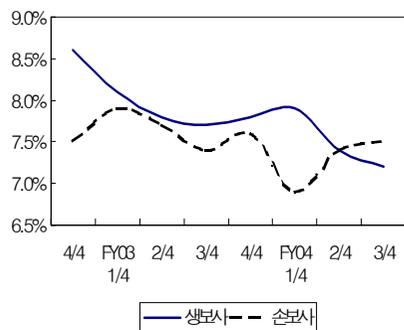
<주요 자산운용 환경>

- FY2004 1/4~3/4분기 기간중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는 금리하락과 주가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자산과 주식의 보유비중이 높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이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금리는 2003년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다 2004년 본격적인 저금리기조가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주가는 2004년 상반기 중 불안정한 추이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FY2004 3/4분기 손보사의 운용자산 대비 주식비중은 6.1%, 단기매매증권의 비중은 13.8%로서 생보사의 3.2%,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중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FY2004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오히려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남.

<그림 1> 금리 및 주가 추이



<그림 2> 보험사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금리는 국고채 3년 최종호가수익률이며, 보험회사 운용자산수익률은 누적임.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동향>

- 생보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을 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2004년 중 적극적인 채권매도와 주식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됨.
- 생보사의 FY2004년 3/4분기 운용자산수익률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16.2%, 9.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 그러나 그 비중이 0.2%, 0.7%로 미미해 전체 운용자산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지표 추이

(단위 : %, 천억원)

구분	구성비		운용자산수익률
	FY'03 4/4	FY'04 3/4	FY'04 3/4
유가증권	54.8	57.2	6.3
단기매매증권	3.3	3.5	8.0
- 주식	0.2	0.2	16.2
- 채권등	0.6	0.7	9.0
- 수익증권	1.1	0.9	12.8
매도가능증권	39.7	45.5	6.5
- 주식	4.7	3.0	2.3
- 채권등	22.5	29.8	7.6
- 수익증권	9.9	9.8	5.6
만기보유증권	11.4	7.4	5.0
- 채권등	10.2	6.3	4.9
- 수익증권	1.2	1.1	6.1
지분법투자주식	0.4	0.8	1.8
운용자산	1,520	1,676	-

주 : 1) 기간말 기준, 구성비는 전체 운용자산 기준임.

2) 운용자산에는 유가증권 외에도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 부동산 등이 있으나 논의에서 제외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동향>

- 손보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의 보유비중이 높은 가운데 2004년 중 주식 및 단기매매채권의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추정됨.
- 단기매매증권의 주식과 채권을 각각 28.2%, 10.6%,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의 주식과 채권은 8.5%, 7.6%의 수익률을 기록함.
- 특히 보유비중을 통해 판단할 때 단기매매증권을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보유비중을 모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매매증권의 주식과 채권은 각각 0.9%, 8.8%에서 0.6%, 7.4%로 감소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의 주식도 같은 기간 6.4%에서 5.5%로 감소하였음.

<표 2>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지표 추이

(단위 : %, 천억원)

구분	구성비		운용자산수익률
	FY'03 4/4	FY'04 3/4	FY'04 3/4
유가증권	54.7	55.1	8.3
단기매매증권	15.1	13.8	9.1
- 주식	0.9	0.6	28.2
- 채권등	8.8	7.4	10.6
- 수익증권	5.4	5.8	4.7
매도가능증권	36.5	38.0	7.7
- 주식	6.4	5.5	8.5
- 채권등	29.9	31.9	7.6
- 수익증권	0.3	0.6	0.1
만기보유증권	2.7	2.8	9.9
- 채권등	2.7	2.8	9.9
- 지분법투자주식	-	0.5	21.3
운용자산	324	354	

주 : 1) 기간말 기준, 구성비는 전체 운용자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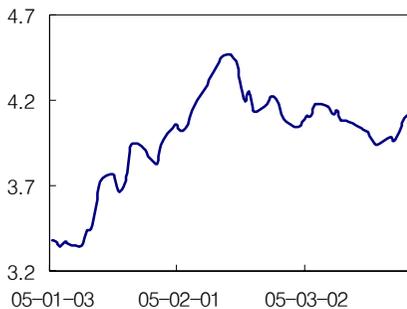
2) 운용자산에는 유가증권 외에도 현금과 예금, 대출채권, 부동산 등이 있으나 논의에서 제외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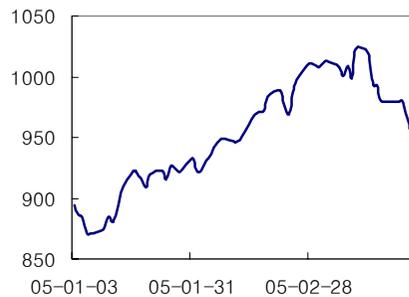
<FY2005 투자 환경>

- 2005년 들어서 주가, 금리 등 주요변수들이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 환경은 2004년보다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금리(국고채 3년)는 2004년 말 3.28%에서 2005년 2월 14일 4.43%까지 반등한 이후 4%전후로 하락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저금리기조는 해소되지 않은 채 차익여지가 감소하는 상황임.
- 주가는 3월 11일 1,022p까지 상승하였으나 3월 15일 이후 1,000p아래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투자환경도 2004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음.

<그림 3> 국고채(3년) 수익률추이



<그림 4> 주가추이



- 따라서 FY2005 보험회사들은 시중 자금흐름에 유의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위한 장기적 자산운용계획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단기운용자산의 탄력적인 매매 그리고 자산운용비용의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4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4년 4/4분기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의 경기는 조정 또는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음.

- 세계 경제는 중국이 9%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미국도 4.0% 전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과 EU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이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04년 4/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경우 2004년 하반기 이후 5.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어 고용 창출 효과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ISM제조업지수는 2004년 5월 62.6에서 2005년 2월에는 55.3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도 2004년 12월 97.1에서 2005 2월에는 94.1로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호조세의 지속에 대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은 긴축정책에 따른 고정 투자 증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 확대에 힘입어 생산 증가가 2005년 1월 20.9% 수준에 달하는 등 경기 확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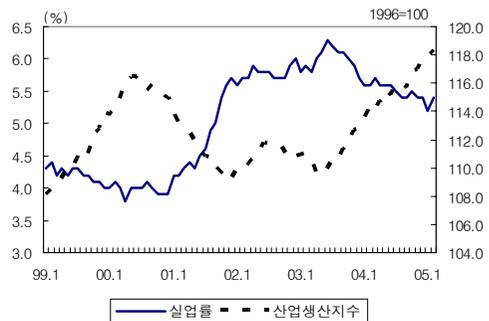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4/4	연간
미 국	0.5	2.2	3.0	3.7	4.3
일 본	0.2	-0.3	1.4	0.8	2.7
중 국	7.5	8.0	9.1	9.5	9.0
EURO	0.9	0.5	2.0	1.8	2.0

주 :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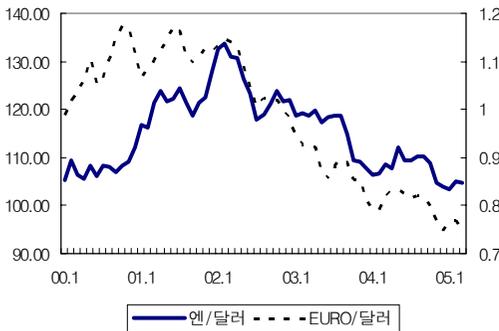
자료 : 국제금융센터, EUROSTAT,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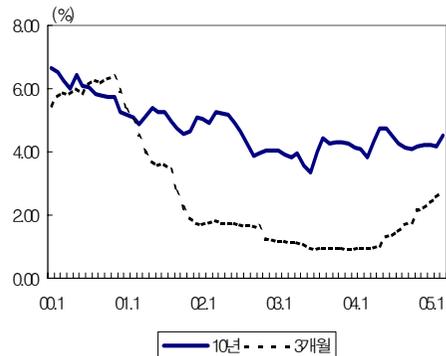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2003년 5.3%였던 실업률이 2005년 1월 4.5%로 낮아지는 등 민간부문의 경제여건은 개선되었으나 공업생산의 둔화로 경제 성장이 약화되고 있음.
- EU의 경우 실업률이 9%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불황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부진한 상황임.
- 2005년 6월 이후 미 연준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장기금리도 2005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달러화 가치도 보합세를 나타냄.
- 미연준은 2004년 6월 이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1.0%에서 2.7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
 - 이러한 단기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만기 채무성 채권수익률은 경기호조세의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6월 이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상승세로 반전하여 3월에는 4.5%를 상회함.
- 달러화는 2004년 4/4분기에 무역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큰 폭 약세를 보였으나 2005년 들어 상대적인 경기호조세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강세를 보임.
 - 엔/달러와 달러/Euro는 2005년 1월 평균 각각 103.34, 1.31(Euro/달러 0.76)에서 3월 18일에는 104.75, 1.33(Euro/달러 0.75)로 소폭 상승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3월은 18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uise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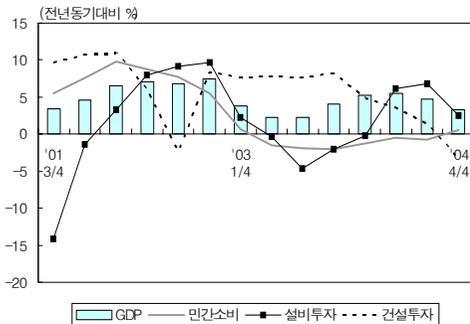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3월은 18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수출과 투자 부문의 부진으로 전체적인 경기는 불황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2005년 1월 중 큰 폭으로 반등하고 원화까지도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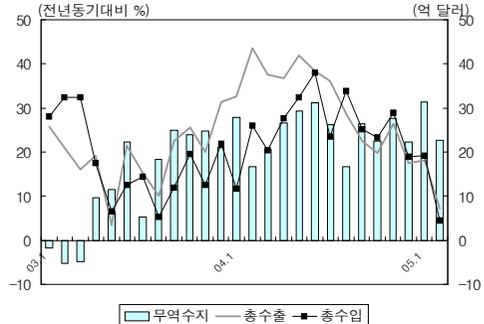
- 2004년 4/4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4년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4년 4/4분기 -3.4%를 기록했으며 설비투자도 기업의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3/4분기 6.8%에서 4/4분기 2.5%로 하락하는 등 투자 부문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장기간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4/4분기 중 내구재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0.6% 성장으로 반전함.
 - 불변가격 기준 수출증가율은 그간의 급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3/4분기 17.7%에서 4/4분기 9.8%로 크게 하락하면서 4/4분기 경제성장률도 4.7%에서 3.3%로 둔화됨.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수출증가율은 2004년 11월 이후 20% 이하로 감소한 상태임.
 - 수출증가율은 2005년 2월 설효과까지 겹치면서 7.3%로 둔화되었으나 수입증가율도 크게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2004년 9월 이후 월 2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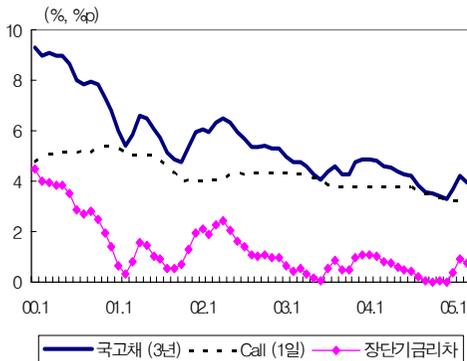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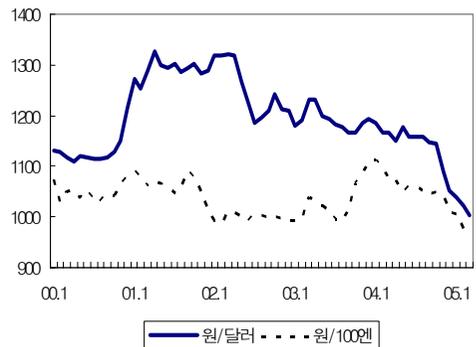
- 불황 국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장기금리가 일시에 반등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었으며 대규모 무역 흑자의 지속에 따라 원화가치도 빠르게 상승함.
- 단기금리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2005년 초부터 2월 중순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고채(3년)와 콜금리 사이의 금리차가 0.7%p 이상으로 확대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2004년 11월 이후 콜금리 운용목표를 3.25%에서 동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거나 물가불안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004년 12월 평균 3.28%에서 2월 14일에는 4.43%까지 상승한 이후 3월 중에는 일시적으로 3%대에 진입하는 등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대규모 무역 흑자의 지속으로 원화가치는 11월 이후 달러 및 엔화에 대해 급속한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음.
 - 원/달러와 엔/달러의 경우 2004년 11월 1091.2, 10.4에서 빠르게 하락하여 2월에는 1022.4, 9.7까지 하락하였으며 3월 들어서는 약 1000과 9.6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음.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3월은 17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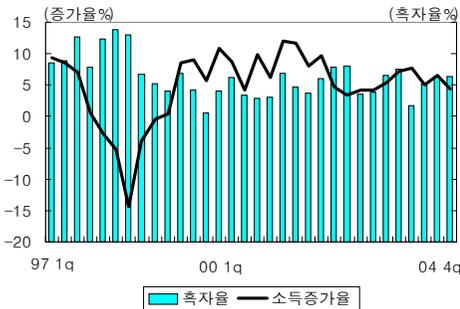
주 : 3월은 18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005년 들어 소비자 심리가 큰 폭의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반면, 2004년 4/4분기 시중자금은 주가상승과 금리하락을 반영하여 주식형 및 채권형 간접상품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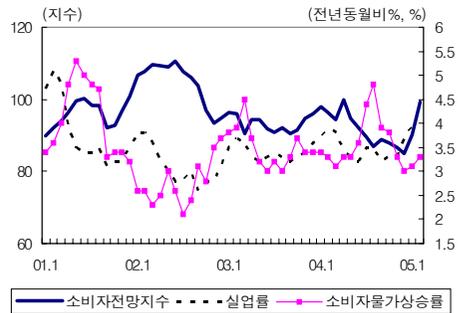
- 2005년들어 소비자 심리가 급속히 호전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2004년 4/4분기 4.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조세 및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 증가분을 제외한 경상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2%의 부진한 수준을 기록함.
 - 2004년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안정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1, 2월 각각 3.1, 3.3%를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
 - 소비자 전망지수는 2005년 2월 99.4를 기록하여 2004년 4월의 9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준치 100에 접근하고 있음.
 - 2004년 4/4분기에 나타난 내구재의 소비 회복과 2005년들어 나타난 소비심리의 회복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인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 실업률 등 가계 경제 여건과 관련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면이 있음.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4년 4/4분기(FY2004 3/4분기)중 시중자금은 투신권의 채권형 그리고 생명보험의 생존보험 등으로 유입되는 특징이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및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험권 전체적으로 9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순유입됨.
 - 투신권의 경우 2004년 4/4분기에 나타난 금리 하락세와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형과 주식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3/4분기(FY2/4분기) 13조 7천억원에 이어 4/4분기(FY3/4분기) 14조 8천억원의 시중 자금이 유입됨.
 - 또한 MMF에 대해서도 동기간 중 3조 4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어 신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금 계정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신탁계정에서도 1조 5천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총 2조 8천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함.
- 2004년 4/4분기까지 진행되었던 불황국면이 2005년에 들어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보험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3		CY2004			
	3/4	4/4	1/4	2/4	3/4	4/4
보 험	47,189	88,743	48,649	64,808	71,449	94,002
생명보험	34,893	74,824	37,604	48,549	54,862	75,500
손해보험	12,296	13,919	11,045	16,259	16,587	18,502
은 행	-30,594	189,814	-67,109	37,239	-1,871	-28,410
일반계정	1,512	221,476	-11,707	40,699	19,734	-13,394
신탁계정	-32,106	-31,662	-55,402	-3,460	-21,605	-15,016
증 권	-6,525	5,843	-5,145	5,049	-1,427	-11,172
투 신	63,286	-178,020	170,435	-14,380	136,801	148,323
총 금	-21,375	-38,056	-20,816	7,090	940	-18,256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임.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4 3/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건강관련 보험상품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생명보험의 상대적 부진으로 2.9% 성장에 그침.

- FY2004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의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생명보험의 상대적 수요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한 21조 7,954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은 생존보험의 감소 및 생사혼합보험의 감소세 심화로 인해 개인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가 축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0.5%의 저조한 성장을 보임.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동차보험 등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9.3%의 견조한 성장을 보임.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0.7	6.5	3.9	2.7	6.3	10.4	0.5
손해보험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2.6	3.6	5.6	3.8	9.0	8.1	9.3
합 계	167,527	211,837	173,136	717,668	176,933	183,729	217,954
	1.3	5.7	4.4	3.0	7.1	9.7	2.9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4 3/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 5.3%, 손해보험 4.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5.1% 성장함.

- FY2004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자산이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252조 6,053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09조 9,079억원으로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와 보험영업수지의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실적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42조 6,974억원을 나타냄.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9	5.2	2.3	14.1	2.2	4.1	5.3
손해보험	369,919	378,639	388,229	388,229	395,180	409,196	426,974
	2.3	2.4	9.8	9.8	1.8	3.5	4.3
합계	2,111,131	2,211,018	2,261,844	2,261,844	2,310,389	2,403,034	2,526,053
	2.8	4.7	2.3	13.3	2.1	4.0	5.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4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5조 5,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함.
 - 개인보험은 그동안 성장을 이끈 생존보험이 12.1%나 감소하고 생사혼합보험 또한 부진이 심화(-22.4%)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으로써 부진을 보임.
 - 단체보험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던 퇴직보험이 성장세로 반전하면서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를 상쇄하면서 4.3% 증가한 3조 2천억대로 성장함.
- FY2004 3/4분기 총자산 규모는 209조 9,07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투자영업수지의 지속적 증가세(33.6%)와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른 보험영업수지 증가(24.0%)로 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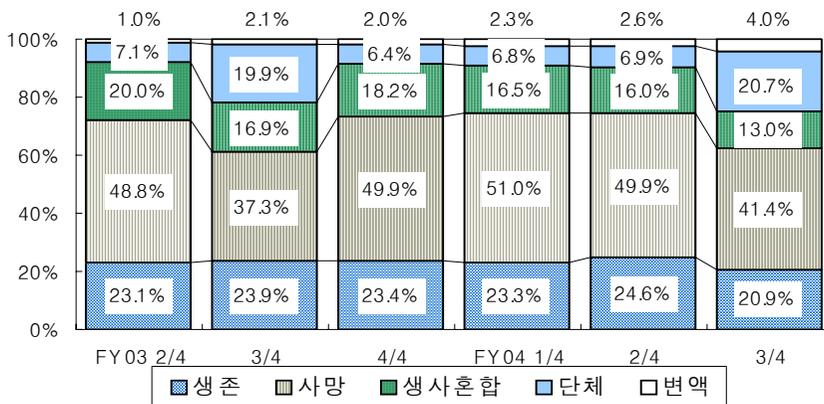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자 산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2,099,079
	2.9	5.2	2.3	14.1	2.2	4.1	5.3
수입보험료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0.7	6.5	3.9	2.7	6.3	10.4	0.5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4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여전히 사망보험이 41.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생존보험 20.9%, 단체보험 20.7%, 생사혼합보험 13.0%, 변액보험 4.0% 순으로 나타남.
- FY2004 3/4분기에는 생존보험이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비중이 축소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해 퇴직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해 점유율을 4% 수준으로 확대함.
 - 사망보험은 2/4분기에 이어 계절적 요인 외에 성장폭의 둔화와 맞물려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신보장성보험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생존보험은 생존위험의 증가와 함께 성장해왔으나 지난 동기에 비해 방카슈랑스의 마케팅 강도 약화와 변액연금의 판매강화 영향으로 점유율이 축소되어 20.9%대로 하락함.
- 3/4분기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구성 중 무배당 보험은 84.4%로 특히 무배당 보장성보험이 51.2%를 차지하였으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비율은 77.8% : 22.2%이었음.
 - 종신보험 비중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의 22.3%로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감소했으며, 질병보험이 20.5%로 비중확대(전분기 19.1%)되고, 변액보험이 1/4분기 2.3%에서 3/4분기 4.0%로 팽창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4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2조 3,574억원이었으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조 2,158억 원이었음.
- 3/4분기 사망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여 6조 4,497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면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3.2%, 2/4분기 24.9% 감소하였으나 3/4분기 3.0% 감소에 그쳤으며 기타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1/4분기 184.6%, 2/4분기 14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 3/4분기 27.6%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둔화됨.
- 생존보험은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하면서 그 동안의 견조한 성장세에서 감소세로 반전됨.
 - 또한 FY2004 3/4분기에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초회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했으며, 이는 금감원 실태 점검과 함께 방카슈랑스채널 안정화에 따른 내실 위주의 보험판매영업형태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만약, 방카슈랑스 연금보험 등 실적(초회보험료)제외시 생존보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은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2조 279억원의 실적을 보여 연말 저축수요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경우, 2/4분기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3/4분기도 수입보험료가 3조 2,15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의 성장률을 보임.
 - 이는 규모가 큰 퇴직보험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8.5%)되고 일반단체보험이 감소(8.5%)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최근 경제회복의 조짐과 맞물린 것으로 보임.
- 상품별 수입보험료를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전년동기 대비 87.1%의 높은 성장을 했으며 변액종신이 247.2%, 종신보험이 17.7%, 질병보험 16.2%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이 12.2% 감소함.
 - 또한 일반계정 중 유배당보험이 19.5% 감소한 반면, 무배당보험은 0.1%의 소폭 증가에 그침.

- 특히 변액보험 기타로 분류되는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이 1247.3% 증가, 보장과 투자성과를 배분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인기를 보여줌.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성장률	20.0	56.8	16.0	26.5	18.3	17.4	-12.1
	구성비	23.1	23.9	23.4	23.0	23.3	24.6	20.9
사망	보험료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성장률	6.3	7.0	9.7	8.3	11.2	12.9	11.8
	구성비	48.8	37.3	49.9	45.5	51.0	49.9	41.4
생사 혼합	보험료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성장률	-14.5	-9.5	-18.7	-14.4	-14.6	-11.8	-22.4
	구성비	20.0	16.9	18.2	18.8	16.5	16.0	13.0
변액 보험	보험료	1,136	3,210	2,356	7,621	2,785	3,293	6,256
	성장률	682.7	372.6	122.5	285.7	202.8	189.9	94.9
	구성비	1.0	2.1	2.0	1.5	2.3	2.6	4.0
개인 계	보험료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성장률	4.8	15.8	5.1	7.6	8.7	10.6	-0.4
	구성비	92.9	80.1	93.6	88.7	93.2	93.1	79.4
단체	보험료	8,094	30,836	7,726	56,764	8,262	8,769	32,158
	성장률	-33.1	-19.6	-10.3	-24.5	-18.3	8.3	4.3
	구성비	7.1	19.9	6.4	11.3	6.8	6.9	20.7
합계	보험료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성장률	0.7	6.5	3.9	2.7	6.3	10.4	0.5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비중 감소세가 회복으로 반전하고 중소형사들의 선전으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다소 확대되어 지난 분기 대비 0.7%p,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70%대를 하회하고 있음.
- 3/4분기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일부 보험회사들의 선전으로 1.4%p 증가한 16.1%의 점유율 보였으며,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1%p 감소한 15.3%를 나타냄.
 - 외국사는 신채널(방카슈랑스, TM 등)과 적극적 설계사 확충으로 선전하여 왔으나, 일부 대형 외국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높았던 일부사의 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체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 국내 중소형사는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일부사의 선전으로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71.7	71.5	71.0	72.0	70.1	67.9	68.6
상위 9개사	89.9	87.7	89.0	89.4	88.4	86.3	86.5
외 국 사	14.0	13.0	14.9	13.6	15.5	17.4	15.3
국내중소형사	14.3	15.5	14.2	14.4	14.4	14.7	16.1
허핀달지수	0.2015	0.1969	0.1993	0.2024	0.1935	0.1807	0.1847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4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11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4 3/4분기 당기순이익(잠정치)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기타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고 준비금 전입액이 줄어들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한 2조 8,651억원을 기록하였음.
- 보험영업수지는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으나 보험영업수익이 소폭 증가한 반면 과거 슈퍼캐테크보험의 만기도래 지급보험금 감소 및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 등 보험영업비용이 감소하면서 증가(24.0%)함.
- 투자영업수지는 3/4분기 중 전분기에 이은 채권금리 급락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부실기업들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 등 투자영업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3.6% 증가한 8조 7,623억원을 기록함.
- 한편, 기타 수익이 감소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고 법인세가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손익 및 투자영업손익과 상쇄되면서 당기순이익(잠정치)이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25,632	356,191	477,213	118,151	242,546	368,818
	투자영업	57,164	84,098	118,707	33,879	63,184	101,735
	기타	8,323	5,638	4,487	868	1,451	2,015
	소계	291,119	445,928	600,407	152,898	307,181	472,568
총 비 용	보험영업	185,220	281,384	378,857	88,544	179,129	276,027
	투자영업	10,121	18,513	24,140	5,882	9,617	14,112
	기타비용	15,850	15,437	26,332	3,260	7,076	19,493
	소계	211,191	315,334	429,329	97,686	195,822	309,632
수 지 차	보험영업	40,412	74,807	98,356	29,607	63,417	92,791
	투자영업	47,043	65,585	94,567	27,997	53,567	87,623
	기타	-7,528	-9,798	-21,845	-2,392	-5,625	-17,478
	소계	79,928	130,593	171,078	55,212	111,360	162,936
준비금 전입		61,671	109,932	149,949	42,688	90,655	133,639
법 인 세		187	187	5,255	8	8	646
당기순이익		18,069	20,474	15,874	12,517	20,696	28,651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4 3/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로 0.2%p 하락한 반면, 사업비율은 사업비의 소폭 증가로 1.2%p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사망보험(24.8%)과 생존보험(18.5%)의 증가로 개인보험이 증가세(7.9%)로 돌아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0.2%가 증가함.
 - 상품별로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여전히 19.6%로 크게 감소한 반면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이 39.6%로 증가했으며, 사업비의 경우 생사혼합보험(96.2%)이 크게 증가했으며, 단체 저축성보험(27.6%)도 증가함.
 - 3/4분기 해약률은 11.5%로 지난 동기 대비 1.4%p 개선되었으며 보험회사들이 계약유지 노력이 지속되고 계약자들의 계약유지 의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계약률은 19.2%로 소폭 감소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지급률	65.8	51.7	68.7	63.0	59.9	56.7	51.5
생존	50.7	39.4	60.5	50.4	52.8	48.9	54.0
사망	31.6	32.8	34.3	32.2	32.6	33.8	35.9
생사혼합	136.1	108.9	121.1	126.6	123.9	112.7	115.6
개인계	59.0	51.0	58.2	57.2	54.5	52.0	55.3
사업비율	17.8	14.8	19.0	17.1	18.0	18.6	16.0
신계약률	12.4	19.6	27.4	27.4	6.2	12.7	19.2
해약률	9.2	12.9	16.2	16.2	4.3	8.0	11.5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3/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7.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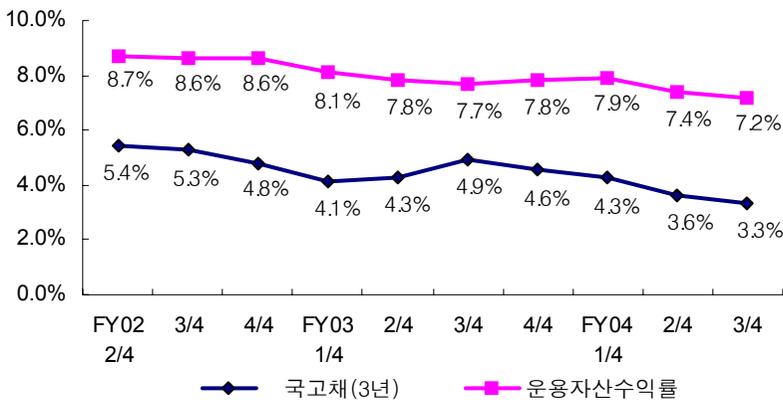
○ 유가증권 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p 감소한 6.3%를 기록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기에 비해 0.8%p 증가하였고, 평균 수익률은 2/4분기에 비해 0.9%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수익률 증가와 달리 채권 수익률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기에 비해 0.2%p 증가하였지만, 평균 수익률은 2/4분기에 비해 0.3%p 감소하였으며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처분시 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만기보유증권 보유는 전기에 비해 0.3%p 감소하였으나, 채권과 수익증권 수익률의 증가로 전기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타 운용자산의 비중은 감소되는 추세임.
- FY2004 3/4분기 매도가능증권 45.5% 중 약 65%를 차지하는 채권은 그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2/4분기에 비해서는 0.8%p 증가함.
- 이는 안정자산 선호와 더불어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이 채권보유를 선호한 결과로 판단됨.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1	2.9	1.8	3.1	1.8	3.1	2.0	2.9	2.0	3.0
유 가 증 권	53.7	6.9	54.8	7.0	55.6	7.5	56.6	6.6	57.2	6.3
○ 단기매매증권	3.2	11.3	3.3	11.0	3.1	7.2	2.7	8.9	3.5	8.0
- 주 식	0.2	82.5	0.2	79.5	0.2	9.8	0.2	14.9	0.2	16.2
- 채권 등	0.8	6.6	0.6	6.8	0.8	7.1	0.8	9.6	0.7	9.0
- 수익증권	1.1	12.6	1.1	13.6	1.0	9.8	0.9	11.9	0.9	12.8
○ 매도가능증권	39.0	6.6	39.7	6.8	43.9	7.5	45.3	6.8	45.5	6.5
- 주 식	4.2	2.4	4.7	5.4	3.8	2.4	3.7	3.1	3.6	2.3
- 채권 등	21.5	7.5	22.5	7.3	27.9	8.7	29.0	7.8	29.8	7.6
- 수익증권	10.7	7.0	9.9	7.1	9.7	5.4	10.1	5.8	9.8	5.6
○ 만기보유증권	11.0	6.5	11.4	6.6	7.7	4.8	7.7	4.9	7.4	5.0
- 채권 등	9.7	6.6	10.2	6.6	6.5	4.7	6.5	4.8	6.3	4.9
- 수익증권	1.3	5.5	1.2	6.0	1.2	5.7	1.2	5.8	1.1	6.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5	6.7	0.4	6.2	0.9	45.5	0.8	6.9	0.8	1.8
대 출 채 권	27.0	10.3	26.1	10.6	25.4	9.8	24.7	10.0	23.7	10.0
부 동 산	5.3	3.3	5.2	4.1	5.0	4.9	4.8	4.3	4.6	5.0
운 용 자 산 계	88.1	7.7	88.1	7.8	87.9	7.9	88.2	7.4	87.4	7.2
비 운 용 자 산	11.9	3.6	11.9	5.7	12.1	6.9	11.8	6.0	12.6	10.7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1.7)	7.2	100.0 (92.1)	7.6	100.0 (92.2)	7.8	100.0 (92.4)	7.2	100.0 (91.4)	7.6
특 별 계 정 자 산	8.3	5.8	7.9	6.1	7.8	5.4	7.6	4.7	9.4	5.1
총 자 산	100.0	7.1	100.0	7.5	100.0	7.6	100.0	7.0	100.0	7.4
총 자 산 규 모	1,832,379		1,873,615		1,915,209		1,993,836		2,099,079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4 3/4분기 현재 회사직급과 대리점을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은 2/4분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직급을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2/4분기에 비해 6.6%p 증가했으며, 중소형사는 8.5%p 증가하였고, 외국사는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대형사의 경우 3.9%p 감소한 반면, 외국사는 7.1%p 증가하였고 중소형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4분기에 비해 대형사, 외국사, 중소형사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4분기에 비해 0.4%p 증가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회사직급	14.6	18.1	15.9	17.8	8.1	13.6	29.2
보험설계사	42.2	25.7	42.6	37.2	47.0	33.5	28.3
대 리 점	7.3	6.1	7.9	7.5	8.3	5.9	6.3
중개인	-	-	-	-	0.0	0.1	0.0
T/M	2.9	1.7	3.1	2.3	0.3	0.2	0.2
C/M	0.1	0.05	0.1	0.1	0.0	0.0	0.0
방카슈랑스	32.7	48.2	30.1	34.8	36.3	46.7	36.0
기 타	0.2	0.2	0.3	0.3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984	29,943	13,632	64,383	11,868	16,443	21,974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3/4분기의 초회보험료 증감률 변동 중 눈에 띄는 사항으로 대형사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구분 없이 회사직급별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음.
- 3/4분기의 대형사 방카슈랑스 증가율은 2/4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5.6% 증가하였으며, 중소형사는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의 회사직급은 2/4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형사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모집조직>

- FY2004 2/4분기에 비해 보험설계사 인원과 대리점수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인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중 자산규모나 내외국사와 관계없이 보험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동일 기간 중 보험설계사 인원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만원)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임직원	25,616	26,172	26,201	26,237	26,015
보험설계사	144,666	143,498	145,496	144,714	139,945
생산성	-	2,289	-	-	-
대리점	7,406	7,219	7,268	7,003	6,718
생산성	-	5,899	-	-	-

주 : 각 상단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 + \text{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진익 선임연구원, 이정환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속 성장과 자동차보험 등의 성장세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성장한 6조 2,222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 지속과 보험시장내 경쟁격화에도 불구하고 요율인상효과와 대물보험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조 1,991억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질병 등 건강보험, 통합보험의 판매 증가와 방카슈랑스의 활성화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가입 증가로 13.3% 성장한 2조 4,710억원을 나타냄.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42조 6,97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음.
 -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증가와 투자자산의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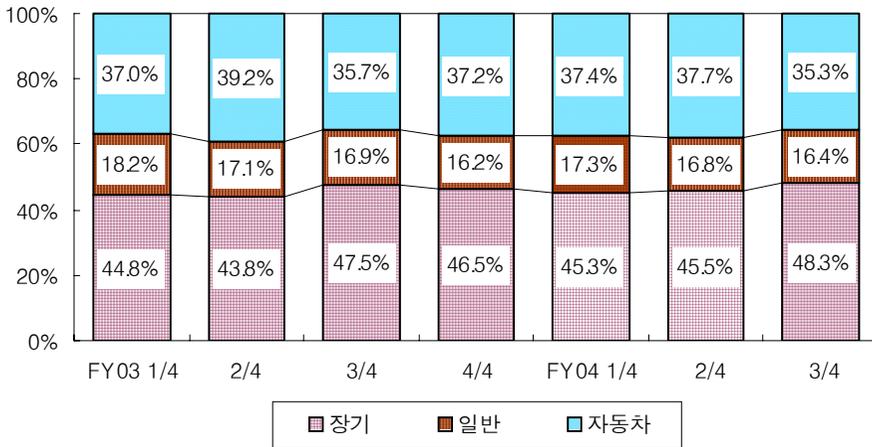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2.6	3.6	5.6	3.8	9.0	8.1	9.3
총자산	370,015	378,918	388,229	388,229	395,180	409,196	426,974
	2.3	2.4	9.8	9.8	1.8	3.5	4.3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48.3%, 자동차보험 35.3%, 일반손해보험 16.4%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보험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2.8%p 증가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4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한 2조 1,991 억원을 나타냄.
- 이는 내수부진 지속과 보험시장내 경쟁격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상승에 따른 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상대적 성장을 반영한 것임.
- 대물배상 가입의무화 및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의 상승,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였음.
- 2004년 12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2%p 감소한 2.4%를 기록하여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온라인 상품의 비중은 온라인 상품의 판매가 중소기업사에 그치지 않고 대형사로 확대됨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상해·질병 등 건강보험, 통합보험 판매 증가와 방카슈랑스 및 2위권 경쟁심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전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13.3% 성장한 2조 4,710억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은 24.5%, 질병보험은 12.7%, 저축성보험은 25.0% 증가하였음.
 - 저축성보험의 증가는 방카슈랑스 및 2위권 손보사간 경쟁심화로 저축성 보험 판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금리변동) 부분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7%인 데 반하여, 2위권 손보사의 경우는 32.9%를 기록함.
- 보증보험은 연이은 요율 인하와 공적기관의 보증을 포함한 유사보증기관의 시장잠식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의 마이너스 성장한 2,218억원을 기록함.
 - 이는 2004년 건설공사 계약관련 이행보증보험요율 인하뿐만 아니라, 2005년 소평몰보증보험료 인하와 2005년 10월 4일부터 납품, 도급계약, 매매계약 관련 이행보증보험 요율 인하 등의 영향 때문임.
 - 보증보험의 시장점유율은 5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한 3.6%를 기록함.
- FY2004 3/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한 1,263억원임.
 - 이는 3/4분기 수출 급증으로 인하여 전체 해상보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화보험이 17.5% 증가하였기 때문임.
- FY2004 3/4분기 화재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화재보험의 종합보험으로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의 마이너스 성장한 825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기존의 화재보험에서 참조순보험요율 보다 요율이 낮은 재보험자협의요율을 적용하는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 때문임.
- FY2004 3/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기업성보험 가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성장한 5,691억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46.8%, 기계보험은 12.5%, 종합보험은 5.5% 증가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61	881	692	3,160	763	664	825
	성장율	0.9	-3.1	-7.7	-1.8	-7.5	-12.8	-6.4
	구성비	1.4	1.5	1.3	1.5	1.4	1.2	1.3
해 상	보험료	1,385	1,151	1,310	5,242	1,263	1,410	1,263
	성장율	-0.2	-11.0	-7.6	-6.5	-9.5	1.8	9.7
	구성비	2.6	2.0	2.5	2.5	2.3	2.5	2.0
자동차	보험료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21,528	21,991
	성장율	-1.2	-1.1	7.3	0.6	10.1	4.2	8.3
	구성비	39.2	35.7	37.2	37.2	37.4	37.7	35.3
보 증	보험료	2,261	2,259	2,475	9,419	2,353	2,179	2,218
	성장율	1.2	-6.4	-2.2	0.6	-2.9	-3.6	-1.8
	구성비	4.3	4.0	4.7	4.4	4.2	3.8	3.6
특 종	보험료	4,454	5,140	3,933	18,073	5,083	5,088	5,691
	성장율	3.1	10.7	13.3	8.0	11.8	14.2	10.7
	구성비	8.4	9.0	7.4	8.5	9.1	8.9	9.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	163	173	628	208	214	188
	성장율	27.3	11.9	13.3	11.4	51.9	38.4	15.3
	구성비	0.3	0.3	0.3	0.3	0.4	0.4	0.3
장 기	보험료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23,553	24,710
	성장율	6.5	7.2	6.5	7.1	9.2	12.2	13.3
	구성비	39.8	38.3	41.8	40.1	40.9	41.3	39.7
개 인 연 금	보험료	1,705	1,716	1,748	6,873	1,746	1,680	1,695
	성장율	1.3	0.9	0.4	1.3	2.5	-1.5	-1.3
	구성비	3.2	3.0	3.3	3.2	3.1	2.9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388	3,488	751	4,949	686	715	3,642
	성장율	37.6	17.0	-14.6	12.4	113.2	84.3	4.4
	구성비	0.7	6.1	1.4	2.3	1.2	1.3	5.9
계	보험료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성장율	2.6	3.6	5.6	3.8	9.0	8.1	9.3

주 : 1)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3/4분기 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 중심의 장기손해 보험 판매 확대 및 전업사 시장점유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사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1%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23.8%로 0.6%p 감소하였음.
- 특히,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p 증가한 5.1%를 기록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온라인자동차 전업사의 약진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형사들의 장기손해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음.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점유비	상위4개사	70.1	70.3	70.6	70.6	71.0	71.1	71.1
	일반사 계	94.6	94.7	94.6	94.6	94.7	94.8	94.9
	전업사	4.5	4.4	4.5	4.5	4.3	4.1	4.0
	외국사	0.8	0.9	0.9	0.9	1.0	1.1	1.2
허핀달지수	0.1578	0.1579	0.1576	0.1576	0.1588	0.1595	0.1588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실적 개선과 보험영업손실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55.0% 증가한 1조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파생상품평가이익뿐만 아니라 주가상승 및 금리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익, 배당수익 등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1조 4,638억 원을 기록함.
- 또한, 보험영업손실 규모는 자동차 등의 손해율 안정과 사업비 축소로 인해 감소하였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95,760	145,055	195,477	49,897	101,551	154,488
	투자영업	11,631	16,571	23,056	5,736	12,308	19,292
	기 타	1,584	5,384	6,713	1,119	2,273	6,547
	계	108,975	167,009	225,245	56,751	116,132	180,328
총 비 용	보험영업	96,480	147,472	201,558	49,719	101,688	155,279
	투자영업	3,052	5,452	8,102	2,175	3,453	4,654
	기 타	2,780	6,182	8,199	1,276	2,614	8,324
	계	102,313	159,106	217,859	53,170	107,755	168,257
수 지 차	보험영업	-720	-2,418	-6,081	178	-137	-791
	투자영업	8,579	11,120	14,954	3,561	8,855	14,638
	기 타	-1,196	-798	-1,487	-157	-340	-1,777
	계	6,662	7,904	7,387	3,581	8,377	12,070
법 인 세		1,244	1,453	1,751	665	1,426	2,071
당기순이익		5,418	6,451	5,635	2,916	6,952	10,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자동차손해율과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의 손해율 급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99.6%를 기록함.
 - 자동차손해율은 요율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단속강화에 따른 사고발생률 감소와 전년과 같은 태풍피해가 없어서 전년 동기 대비 3.1%p 하락한 72.7%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이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p 하락한 23.0%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7%p 하락한 15.7%를 기록함.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장기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4%p 증가한 76.6%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환급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증가에 따른 적립금 규모 증가액이 확대되어 손해율이 전년 동기대비 5.8%p 증가한 87.1%를 기록함.
 - 이는 2003년 10월부터 변경된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적립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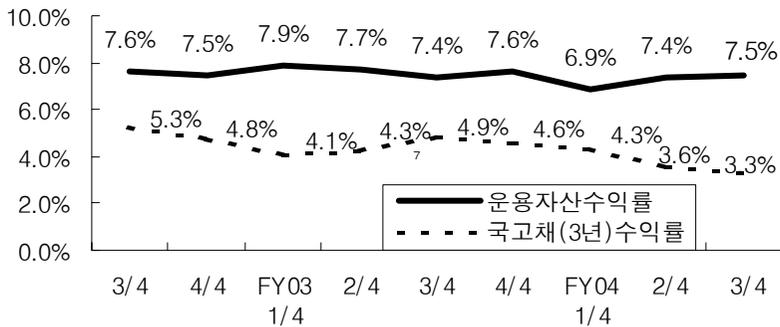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손해율	화재보험	63.9	61.6	61.7	52.7	58.8	54.8
	해상보험	53.6	57.4	57.7	61.3	51.3	49.3
	자동차보험	74.8	75.8	76.7	71.6	72.3	72.7
	보증보험	10.1	23.8	44.1	46.6	27.6	21.9
	특종보험	50.9	51.0	57.8	43.1	47.4	46.5
	해외원보험	47.7	48.5	47.5	13.2	44.3	49.4
	장기보험	80.5	81.3	82.4	85.9	86.6	87.1
	개인연금	115.6	116.1	121.8	117.9	118.4	118.1
	전 체	73.8	75.2	77.6	76.1	76.6	76.6
사업비율	25.2	24.8	24.3	21.8	22.7	23.0	
합산비율	99.0	100.1	101.9	97.9	99.2	99.6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채권 등의 처분익과 평가익 증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7.5%를 기록함.
 - 이는 이자수익의 확대 둔화에도 불구하고 채권 등의 처분 및 평가익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임.
 - 주식의 수익률은 3/4분기 주식시장의 활황에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1.5%p 감소한 11.3%를 기록하였으며, 채권 등의 수익률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처분 및 평가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8.3%를 기록함.
 -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0.7%p 감소한 4.4%를 기록함.
 - 손보사의 파생상품은 대부분 해외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FY2004 3/4분기에 발생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평가익이 크게 늘었으나, 헤지대상이 되는 실물자산에서는 큰 폭의 외화환산손이 발생하여 영업외비용에 반영되었음.
 - 반면,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한 8.4%를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3/4분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경기회복지연,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저금리기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책임

준비금의 빠른 증가로 이자성 자산 위주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여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한 장기자산의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장기보험의 전년 동기 대비 누적증가율은 11.3%, 책임준비금 증가율은 12.9%, 총자산증가율은 12.7%를 나타냄.
- 대출채권의 경우 은행, 생보 등 대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되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신용대출은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담보대출은 확대하고 있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7	3.8	4.9	4.1	5.1	3.8	4.7	3.8	4.9	3.7
유 가 증 권	54.3	8.1	54.7	8.5	54.6	7.3	54.9	8.1	55.1	8.3
○ 단기매매증권	14.3	11.0	15.1	10.5	14.7	7.3	14.4	8.3	13.8	9.1
- 주 식	1.1	85.8	0.9	103.3	0.7	21.2	0.5	32.8	0.6	28.2
- 채 권 등	8.7	9.1	8.8	8.9	9.2	7.4	8.3	8.5	7.4	10.6
- 수익증권	4.5	5.3	5.4	5.1	4.8	4.9	5.6	4.9	5.8	4.7
○ 매도가능증권	37.0	6.5	36.5	7.5	36.3	7.3	37.1	7.9	38.0	7.7
- 주 식	6.1	3.0	6.4	6.2	5.6	10.0	5.4	11.7	5.5	8.5
- 채 권 등	30.5	7.2	29.9	7.8	30.4	6.8	31.2	7.2	31.9	7.6
- 수익증권	0.3	2.9	0.3	15.2	0.3	0.9	0.4	-1.3	0.6	0.1
○ 만기보유증권	2.4	8.2	2.7	7.9	3.0	7.2	2.9	7.1	2.8	9.9
- 채 권 등	2.4	8.2	2.7	7.9	3.0	7.2	2.9	7.1	2.8	9.9
○ 투자주식 ¹⁾	0.5	32.1	0.5	14.4	0.5	14.8	0.5	26.1	0.5	21.3
대 출 채 권	17.3	8.7	18.1	8.6	18.5	8.2	18.4	8.3	18.0	8.4
부 동 산	8.9	3.0	8.7	3.0	8.5	2.9	8.3	2.7	8.1	2.7
운 용 자 산 계	86.2	7.4	86.4	7.6	86.7	6.9	86.2	7.4	86.1	7.5
비 운 용 자 산	13.8	-	13.6	-	13.3	-	13.8	-	13.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6.4	100.0	6.6	100.0	6.1	100.0	6.5	100.0	6.7
	(96.6)	-	(96.7)	-	(96.8)	-	(96.7)	-	(96.2)	-
특별계정 자산	3.4	-	3.3	-	3.2	-	3.3	-	3.8	-
총 자 산	100.0	6.2	100.0	6.4	100.0	5.9	100.0	6.3	100.0	6.5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4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모집채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모집채널별 원수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장기 저축성보험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한 1.8%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3,099억원이고, 이 중 장기손해보험의 판매액은 2,487억원을 차지함.
-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회사직급	10,190	14,833	19,323	4,788	9,627	14,500
	9.9	9.5	9.3	8.7	8.6	8.5
보험설계사	36,877	55,697	74,465	19,769	39,889	60,254
	35.7	35.6	35.7	35.9	35.8	35.5
대 리 점	52,676	78,901	105,607	27,551	55,335	84,414
	51.0	50.4	50.6	50.0	49.7	49.7
중개인	577	1,378	1,791	486	990	1,700
	0.6	0.9	0.9	0.9	0.9	1.0
TM	1515	3,153	3,901	1,061	2,361	3,848
	1.5	2.0	1.9	1.9	2.1	2.3
CM	460	974	1,168	273	642	1,029
	0.4	0.6	0.6	0.5	0.6	0.6
방카슈랑스	62	401	813	718	1,759	3,099
	0.1	0.3	0.4	1.3	1.6	1.8
공동인수	863	1,307	1,727	416	776	1,115
	0.8	0.8	0.8	0.8	0.7	0.7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채널의 점유율은 시장내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데,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뿐만 아니라 기존사의 추가적인 시장 진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p 증가한 6.8%를 기록함.

- 온라인자동차보험전업 3사의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1%를 기록함.
- 반면, 중소형보험회사의 전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4 3/4분기 대리점을 제외한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생산성(단위당 수입보험료)은 경기회복지연과 보험시장내 경쟁격화로 하락하고 있음.
- 이는 온라인판매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등 저가 상품 판매 증가와 상해·질병 등 건강보험과 통합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사조직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0,768	20,800	21,207	21,204	21,489	21,731
	49,107.0	71,314.6	91,115.4	22,580.3	44,800.0	66,727.1
보험설계사	57,063	59,286	60,178	62,356	63,759	65,488
	64,625.6	93,945.9	123,741.4	31,702.7	62,561.5	92,007.4
대 리 점	51,068	50,021	48,217	48,352	47,479	46,615
	103,148.6	157,735.0	219,024.1	56,980.5	116,546.9	181,087.5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마련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5.2.17(목) 07:30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정책위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당초 시행계획을 대폭 보완한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함.

<방카슈랑스 시행종목과 일정 조정>

2005년 4월,
순수보장성
보험 허용

① '05.4월 이후

생보 :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소멸형)상품*(특약부제외**) 허용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45.5% 중 → 6.6%만 시행(수입보험료 기준)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중 만기시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

** 특약이 있는 경우(예 : 질병+사망특약)는 제외됨

손보 :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소멸형)상품(특약부제외) 허용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59.4% 중 → 9.2%만 시행

② '06.10월 이후(1.5년 유예)

생보 : 제3보험중 환급형 상품 허용(특약부 제외)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45.5% 중 → 13.3% 시행(누계 19.9%)

손보 : 제3보험중 환급형 상품 허용(특약부 제외)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59.4% 중 → 18.4% 시행(누계 27.6%)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59.4% 중 → 31.8% 시행(누계 59.4%)

③ 08.4월 이후(3년 유예)

생보 :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 상품 허용(여타 2단계 보험상품)

- 당초 2단계 시행예정 45.5% 중 → 25.6% 시행(누계 45.5%)

손보 : 일반 장기보장성보험상품(7.1%)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상품(24.7%) 허용

생명보험

구 분		판매비중	허용시기	
			당초	변경(안)
저축성	연금	22.6	1단계 (03.8)	기허용(42.6%)
	교육	1.2		
	생사혼합	18.8		
신용생명		0.0		
개인 보장성	제3보험	19.9	05.4	05.4(순수보장성) [6.6%] (환급형) [13.3%]
	일반보장성	25.6		08.6
기타보험	퇴직연금	8.0	07.4	추후검토
	단체보험	3.9	07.4	

손해보험

구 분		판매비중	허용시기	
			당초	변경(안)
장기저축성보험		8.6	1단계 (03.8)	기허용 [13.3%]
주택화재		0.1		
개인상해		0.7		
종합보험		4.0		
신용손해보험		0.0		
장기보장성 보험	제3보험	27.6	05.4	05.4(순수보장성) [9.2%]
	일반 장기보장성	7.1		08.4
자동차보험	개인용	24.7	05.4	08.4
	기타	12.6	07.4	추후검토
기타보험		14.6	07.4	추후검토

* 판매비중은 FY03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개선>

특정보험사의 은행 등 판매채널 독과점 방지 장치 마련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제
한 25%로
강화**

-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강화
: 현행 49% 이하 → 25% 이하
-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계산시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 지주 회사 등이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사의 판매비중은 합산하여 33% 이하로 제한

**설계사
수익증권
판매권유
허용**

- 기존 보험모집인에 대한 대책
- 보험사의 실질적 영업조직인 모집인에 대하여 수익증권 판매 권유 허용
- 현재는 보험사의 임·직원만 수익증권 판매 가능

**은행, 설계사
채용시
모집종사자
제한
예외인정**

- 은행 등이 설계사 채용시 모집종사자 제한(현재 점포당 2인 이하)에 대한 예외 인정
- 보험설계사의 채용 기준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기 타

- 은행 등과 보험사간 불평등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하여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
- 표준제휴계약서 내용보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금지
- 표준제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금감위가 정함.

* 표준제휴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예시)

- ① 최소 계약기간(최소 3년) 설정, ② 만료 6개월전 해지 통보
- ③ 불완전 판매시 책임소재, ④ 각종 비용 전가행위의 금지 등

-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장치 마련
 - 보험상품 판매시 은행 등의 보험상품 설명 의무 부과
 -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은행 등의 자율적 Recall제 도입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방카슈랑스
사전·사후
감독 강화**

- 은행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보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향후 불공정 모집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감독
-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 강화
 -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사전신고*토록 하여 과도하게 높은 예정이율·판매수수료 등의 적용 여부 심사
 - * 현재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은 판매 후 금감원에 보고
- 보험업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쳐 2005년 4월 시행
 - 다만,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 권유 허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5년중 시행

*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보도자료, 2005. 2. 17.

(김진억 선임연구원)

2.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동북아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43건의 금융규제 완화

-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금
년 중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하기로 함.
 - 규제완화 작업에 시장 또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4개
분과(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T/F를 구성, 현행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에 대해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
 - 민·관 합동회의 결과 총 101건중 수용 43건(42.6%), 중장기 검
토 32건(31.7%), 수용불가 26건(25.7%)임.
 - 보험 : 총 제안건수 15건중 전부수용 1건, 일부수용 6건, 중장
기 검토 7건, 수용불가 1건임.
- 향후 각 과제의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제2차 민간
T/F 활동을 전개하여 상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추가 규제완화
및 중장기과제 중 시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주요 규제완화 내용>

- ① 공통
 - 금융기관 해외 진출규제 완화
 -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영업점을 신설할 경우 당해 신청금융기관
의 해외영업점 경영실적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시의 제약을 완화
- ② 은행
 - 지주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 현행 1년단위의 지주회사 검사주시를 주력자회사의 검사주기(2
년)와 통일

- 소액 환전절차 간소화
 - 1백만원 이하의 소액 환전시 실명확인 생략
- 예보와의 MOU 체결 은행에 대한 중복검사 축소
 - 예보와 MOU 체결 은행은 금감원 외에도 예보의 수검의무가 있으나, 중복검사를 축소시켜 은행의 수검부담을 완화

보험분야 :
휴면보험금
자율 지급,
보고자료
제출의무
완화,
후순위 채무
인정기준을
자기자본
기준으로
개선

- ③ 보험
 - 휴면보험금 보고의무 폐지
 - 휴면보험금 현황을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휴면보험금 지급토록 지도
 - 보고자료 제출의무 완화
 - 월단위 보고는 축소 조정, 일/수시 보고자료는 보고상황 종료시 폐지하여 업무부담 간소화
 - 부채성 자본(후순위 채무) 관련제도 개선
 -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후순위 채무 인정기준을 납입 자본금 기준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개선
- ④ 증권/외환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 외국회사가 해외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투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한도 확대
 -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보험관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수용과제(수용 1건, 일부수용 6건)

과제명	개선내용	소관부처	시행시기
방카슈랑스 단계별 운영 기간 재검토	- 당초의 시행계획을 조정하여 '08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재경부 (보험과)	'05.4월
해외현지법인 등 진출 규제 완화	- 설치후 1년 이내 해외영업점 경영 실적은 신고수리요건에서 제외 - 해외사무소는 해외경영건전성 요건 적용배제	재경부 (국제금융)	'05년 상반기
휴면보험금 보고의무 개선	-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휴면보험금 지급 노력을 전개토록 하고 보고 의무 폐지	금감위	'05.3월
보고자료 제출의무 완화	- 일/수시보고자료는 보고상황 종료 시 폐지	금감위	'05.3월
자동차보험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 보험료 할증제도 방식 개선	금감위	'05년 4/4
표준이율의 시장금리 연동화	- 기준금리를 회사채(AA-)에서 국고채(5년만기)로 변경하고 기본금리도 4%에서 3%로 인하	금감위	'05년 3/4
부채성 자본 관련제도 조정	- 후순위채무 인정기준을 납입자본금 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	금감위	'05.2

2. 중장기검토(6건)

과제명	개선내용	소관부처
어슈어뱅크의 허용	- 방카슈랑스 목적의 은행 소유시 산업자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4%에서 15%로 확대 - 은행업면허를 종합, 소매, 도매은행업으로 다원화 · 소매은행업은 대기업 여신 취급 금지	재경부 (은행과)
중소기업 대출 의무적 운용비용 폐지	- 대출운용처 선정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기대출에 대한 의무비율제도 폐지	금감위
신용보험 및 보증사업 취급허가	- 보증보험의 단계적 다원화 필요	금감위
지급여력제도 개선	- 변화된 리스크를 반영, 금리연동형 상품의 책임준비금 위험계수 인하	금감위

과제명	개선내용	소관부처
날씨파생상품의 부수업무 영위	- 현재 보험사가 취급할 수 없는 날씨파생상품을 부수업무로 인정하여 취급 허용	재정부 (보험과)
보험사의 이전계약의 보험료 인상 허용	- 보험사의 이전계약시 이전계약의 보험료 인상 허용	재정부 (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도입	-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 등의 수습에 필요한 사회비용 절감	환경부 (법무관실)

*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5. 4. 1.

(조혜원 선임연구원)

3. 금감원, 방카슈랑스 부문검사 발표

- 금융감독원은 2004.10.4부터 11.11까지 11개 보험회사, 8개 은행 본점 및 66개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개요>

금감원, 85개
기관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부문검사

- 검사목적 :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행정지도(2004.6월) 이후 위법·부당행위 발생 여부를 검사
- 대상기관 : 85개 기관
- 실시기간 : 2004.10.4~11.11 (29일간)
- 중점 검사사항
 - 구속성보험 판매 등 불공정영업행위
 - 은행 임·직원에 의한 무자격 보험모집행위
 - 보험회사의 경비 집행의 적정성
 - 기타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등

<검사결과 주요 조치내용>

1) 은행대리점

- 구속성보험(꺾기) 판매
 -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 체결
(하나, 우리, 신한, 외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 14개 지점)

- 보험 부당 모집
 - 보험모집 종사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상담·소개 대가 지급(신한, 조흥, 기업)
 - 보험모집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하나, 외환, 한국씨티, 기업)
 -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모집 활동에 이용(조흥, 국민, 기업)
 - 보험모집자의 여신업무 취급(하나, 우리, 조흥, 제주, 국민, 기업) 등
- 보험 불완전판매 등
 - 상품설명 미흡, 피보험자의 본인 확인절차 미실시 등

<조치내용>

**구속성보험
판매 등과
관련, 업무정지
및 문책조치**

- 구속성보험 판매 관련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
- 구속성보험 판매 등 보험업법 제100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등 8개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1천만원) 부과 및 관련 임원(5명) 문책조치
 - 위법·부당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은행(이사회)과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은행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

**기업성종합보험
변칙 운영관련
문책조치**

2) 보험회사

- 기업성종합보험 변칙 운용
 - 화재위험에 기계, 배상책임을 형식적으로 부보하고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보험 단독 가입시 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판매
- 사업비 집행 및 모집관리 불철저 등
 - 은행 직원에 대한 국내외연수 비용 지원
 -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보험상당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 보험모집 종사자 본인계약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 등

<조치내용>

- 기업성종합보험 변칙 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임원(4명) 문책조치
- 사업비 집행 및 모집관리 불철저 등에 대하여는 관련 보험회사에 주의 등 조치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5. 2. 28.

(김진억 선임연구원)

4. 건교부, 자동차보유자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교부,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힘.
 - 임의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22일 이전에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만원, 자동차의 경우 최저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대물보험 미가입 기간	과 태 료 액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매 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한도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과태료외에도 자동차보유자가 대물보험 미가입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월 22일부터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됨.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 후유장해

(단위 : 천원)

급수	2.22이전 보상한도	2.22이후 보상한도	급수	2.22이전 보상한도	2.22이후 보상한도
1급	80,000	100,000	8급	24,000	30,000
2급	72,000	90,000	9급	18,000	22,500
3급	64,000	80,000	10급	15,000	18,800
4급	56,000	70,000	11급	12,000	15,000
5급	46,000	60,000	12급	10,000	12,500
6급	40,000	50,000	13급	8,000	10,000
7급	32,000	40,000	14급	5,000	6,300

○ 부상

(단위 : 천원)

급수	2.22이전 보상한도	2.22이후 보상한도	급수	2.22이전 보상한도	2.22이후 보상한도
1급	15,000	20,000	8급~9급	1,800	2,400
2급~3급	8,000	10,000	10급~11급	1,200	1,600
4급~5급	7,000	9,000	12급~14급	600	800
6급~7급	4,000	5,000			

(신동현 연구원)

5.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 확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인정 기준을 변경하고 지분법 회계 관련 지급여력 차감 항목을 신설함.
-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 변경**
-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하되, 기 사용중인 후순위채무는 만기까지 현행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으로 인정함.
- 지분법 회계 관련 지급여력 차감항목 신설**
- 보험업법상 자회사 요건(15% 초과 지분소유)에 미달하는 소수지분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지배력 확보를 이유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은 지급여력금액에서 차감함.
 - 다만 보험업법상 자회사는 지분소유에 의한 실질 지배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업무범위도 엄격히 규제되는 등 지분법 회계의 악용소지가 극히 적으므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함.
- 지급여력 차감항목에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을 신설**
- 지급여력 차감항목에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을 신설함.
 - 회계기준 변경으로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이 '04. 3월말부터 자본계정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나,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은 결산일로 부터 3월내에 사외 유출되는 것이므로 지급여력에서 차감하기로 함.
 -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책임준비금 관련 감독규정 문구 정비함.
 - 현행 규정상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하는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문구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명확히 함.

(이정환 연구원)

보험동향 2005년 봄호

6.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

종목별
위험수준을
반영한
비상위험준비
금 적립기준
설정

- 금융감독원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거대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기존의 비상위험준비금제도는 보험종목별 손해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률(5%)로 적립하며, 보험위험과 무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을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적립률 적용으로 변경하고, 최저적립한도도 보유보험료의 50%에서 35%로 완화하였음.
- 적립한도 역시 누적적립액 및 향후 손해율추이를 고려하여 매년 적립기준을 이내에서 당해연도의 실제적립액을 결정하되, 최소한 적립기준율의 35%를 적립하도록 변경함.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을 차등화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¹⁾	보증	특종	재보험
적립기준율 ²⁾	5	3	2	6	5	3

주 : 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까지 적립대상에 포함함.
2) 적립기준율은 직전 1년간 보유보험료 기준임.

-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적립한도는 현행대로 경과보험료의 50%로 하되 새로이 책임보험을 적립대상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은 40%로 축소함.

보험종목별 누적적립한도 차등화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재보험
누적적립한도	50	50	40	50	50	50

- 비상위험과 무관한 투자 또는 사업비 손실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환입요건 중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보전'을 삭제했으며, 대신 비상위험과 관련해서 환입이 용이하도록 환입요건을 완화함.

**비상위험준
비금제도의
운영취지
명확화**

- 환입기준 손해율을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경과손해율)에서 위험보험료에 대한 손해율(경과위험손해율)로 완화하고, 환입을 위한 손해율 수준을 과거 경험손해율 변동분석에 기초하여 보험종목별로 차등화 함.

환입요건 완화

경과손해율	⇒	경과위험손해율
발생손해액(순보험금)		발생손해액(순보험금)
경과보험료(순보험료+사업비)		경과위험보험료(순보험료)

* 종전 환입요건인 경과손해율 100%는 경과위험손해율 150~200%에 상당함.

보험종목별 환입요건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재보험
경과위험손해율	120 ↑	110 ↑	110 ↑	140 ↑	110 ↑	80 ^{주)} ↑

주 : 재보험은 위험보험료 구분이 어려워 경과손해율을 기준으로 함.

(이정환 연구원)

7.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조항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

<개정내용>

자동이체신청
및 매출승인
정보제공시점
부터 보험회사
책임개시

-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대
 - 자동이체 등을 통한 제1회 보험료 납입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시점 확대
 -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이 아니라 자동이체신청 및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개정
 - ※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약관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과의 상계방법 개선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하도록 개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의
자해시
보험금지금

- 내용의 명확화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 보험증권상 주보험과 특약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 구분 표기

-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상이한 경우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개정

□ 기타 사항

-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통지 의무자의 범위 확대
 - 수익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고통지의무자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포함
- 보험금 지급기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사고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3영업일로 개정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보험금 청구시 보험가입 여부는 회사 전산망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험증원은 사실상 불필요

**보험금
지급기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5. 2. 4.

(김진억 선임연구원)

8. 금감원,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2005년 4월부터
장애등급분류표
개정 시행

- 금감원, 장애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생·손보사 겸영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생·손보간 상이한 등급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장애등급분류표를 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장애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 도입

- 장애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 생명보험 6등급 71개 항목을 13개 신체 부위 87개 항목으로 세분화함.

등급별에서
신체부위별로
세분화

- 팔·다리장애의 경우 관절의 운동기능 측정 이외에 근력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방법을 반영하는 등 장애평가방법을 다양화함.

<추진배경>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등급 적용의 곤란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동일한 장애에 대해 생·손보사간 상이한 등급 적용으로 계약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킴.
- 장애등급분류 해설내용도 대부분 의학전문 용어 등을 사용·작성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주요 개선 내용>

장애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 도입

- 장애지급률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 도입
 - 신체부위의 장애 및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율(3~100%)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을 도입함.

장애분류를
신체부위별,
지급을 체계로
개선·세분화

- 1급~6급 → 신체 부위별 장애 정도에 따라 3~100% 적용함.
- 장애분류를 신체 부위별, 지급을 체계로 개선·세분화함.
- 생명보험 6등급 71개 항목 →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
- 장기손해보험 11개 신체부위 →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

현 행	개 선 (안)
제1급(9개 항목)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1. 눈의 장애(10개 항목) : 두 눈이 멀었을 때 등
	2. 귀의 장애(6개 항목)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등
	3. 코의 장애(1개 항목)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제2급(6개 항목)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등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9개 항목)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가 남았을 때 등
	5.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장애(2개 항목)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등
제3급(10개 항목) :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6. 등뼈(흉추)의 장애(9개 항목) : 등뼈(흉추)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등
	7. 체간골의 장애(2개 항목)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등
제4급(16개 항목) :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8. 팔의 장애(9개 항목)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등
	9. 다리의 장애(12개 항목) :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등
제5급(16개 항목)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등	10. 손가락의 장애(6개 항목)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등
	11. 발가락의 장애(7개 항목) :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등
제6급(14개 항목) :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3개 항목)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았을 때 등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11개 항목) :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등

- 한시장해 인정 등 인정범위를 확대**
- 한시장해 인정 등 장해인정범위를 확대함.
 -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보상함.
 - 영구장해와의 형평성을 고려, 영구장해율의 일정부분(20%)을 인정하여 지급함.
- 장해평가 방법 다양화**
- 장해평가 방법을 다양화함.
 - 운동범위(기능) 측정에 의한 장해평가 방법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방법을 반영한 다양한 장해평가 방법을 인정함.
 - 척추의 기능장해 : 손실모형에 의한 장해판정 인정
 - 팔·다리장해 : 근력 검사(근력약화 여부 측정)결과 인정
 - 치매 : 일상적인 기본동작 제한이외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함.
- 개호가 필요한 기본동작제한에 대한 개념 명확화**
- 개호가 필요한 기본동작제한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함.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대하여 중요도별로 가중치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이동 동작 : 40%, 음식물 섭취 및 배변·배뇨 각각 : 20%, 옷 입고 벗기 및 목욕 각각 : 10%
- 팔·다리, 손·발가락의 장해평가 방법을 개선**
- 팔·다리, 손·발가락의 장해평가 방법을 개선함.
 -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나 뼈에 기형을 남긴 경우 장해율을 부여함.
 - 팔·다리의 기능장해 및 손가락·발가락의 기능, 걸손장해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율을 설정한 후, 장해율을 합산하여 전체 장해율을 결정함.
 - 3대 관절중 1관절 장해의 경우 10%, 2관절 장해의 경우 20%, 3관절 장해의 경우 30%의 장해율을 인정함.

용어의 순화

□ 용어의 순화

-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의학용어 및 보험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 또는 병기함.
- 강직(관절굳음), 반흔(흉터) 등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5. 2. 4.

(신동현 연구원)

해외보험동향

1. 미국 동향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명보험 판매 설문조사>

방카슈랑스
판매전략 :
①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인지도 제고
② 35세 이하
중산층 공략
③ 개별
방카슈랑스
상품의
브랜드화

- LIMRA는 2004년에 실시한 방카슈랑스 판매 설문조사 결과와 2001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카슈랑스 판매 전략을 발표함.
 - 판매전략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전략은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며, 특히 판매 대상은 35세 이하 중산층을 위주로 하고, 은행의 개별 방카슈랑스 상품을 각각 브랜드화 하여 우수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
- 2004년의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9억 2,600만 달러로서 2000년의 3억 3,800만 달러보다 3배 정도 증가함.
 -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의 수입보험료는 7억 6,000만 달러로서 2000년의 1억 9,200만 달러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53%가 방카슈랑스 상품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2001년의 48%와 비교하여 방카슈랑스 상품의 인지도가 더 떨어진 것을 보여줌.
 - 다만, 방카슈랑스 상품 존재를 알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54%가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의 42%보다 개선된 것을 보여줌.

18세~34세를 대상으로 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전략 필요

- 그러나 단순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인지도 제고 노력은 판매증대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상품을 알고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연령별로 구매 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방카슈랑스 상품 인지도 제고 노력 보다는 방카슈랑스 상품 구매력이 높은 연령층 대상의 집중적 판매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8세~34세의 연령층이 구매력이 높은 대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결혼·주택 마련·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 등의 이유로 은행출입이 빈번할 것이란 설명이 제시됨.
- 판매채널별 생명보험 상품 구매의사와 관련하여 6%만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40%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3%에 달했고, 전화로 가입하겠다는 응답자도 3%에 이르러 직접채널에 의한 수요도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방카슈랑스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이더라는 사실의 홍보 필요

- 방카슈랑스 상품의 언더라이팅 여부, 즉 방카슈랑스 상품이 보험사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중 60%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은행 상품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대답함.
 - 한편, “은행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향후 당신의 방카슈랑스 상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8%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하였고, 14%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향후 보험사가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수록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을 하였음.

* 자료 : LIMRA, Buying Life Insurance Through Banks: a consumer panel study, 2005

<미국, 2004년도 연금시장 현황>

2004년 미국
개인연금 :
2,244억 달러
변액연금 :
1,335억 달러

- 2004년 미국의 개인연금은 2,244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 증가하였으며, 변액연금은 1,335억 달러에 달하여 3% 증가하였고, 정액연금은 909억 달러에 이르러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변액연금은 2004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은 주가지수연동형 연금 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2004년 69% 증가하였고, 정액즉시 연금은 2003년 비해 10% 증가하였고 structured settlement는 8% 증가하였음.

미국 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변액연금	2003				2004			
	1/4	2/4	3/4	4/4	1/4	2/4	3/4	4/4
분리계정	16.80	19.90	21.20	23.50	26.90	25.70	22.60	23.90
고정계정	13.5	13.6	11.6	9.3	8.7	8.8	8.5	8.4
소계	30.3	33.5	32.8	32.8	35.6	34.5	31.1	32.3

정액연금	2003				2004			
	1/4	2/4	3/4	4/4	1/4	2/4	3/4	4/4
book value	15.8	14.1	13.4	13	12.3	12.6	12.8	11
주가지수연동 연금	3.5	3.8	3.3	3.8	4.3	5.5	7.5	7
시장가치 조정연금	2.7	2	1.8	1.4	1.1	1.6	2	1.4
정액 이연	22	19.9	18.5	18.2	17.7	19.7	22.3	19.4
정액 즉시	1.3	1.2	1.2	1.1	1.1	1.3	1.4	1.5
structured settlements	1.5	1.6	1.4	1.5	1.6	1.6	1.7	1.6
소계	24.8	22.7	21.1	20.8	20.4	22.6	25.4	22.5
변액+정액	55.1	56.2	53.9	53.6	56.0	57.1	56.5	54.8

독립대리점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LIMRA의 2004년 변액 연금과 정액 연금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발표에 따르면 독립대리점 채널을 통한 연금수입이 주가지수 연동형 연금 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집채널별 미국 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모집채널	변액연금	정액연금	소계
은행	16.40	29.70	46.10
경력설계사	31.6	11.1	42.7
직접채널	14.7	0.9	15.6
FP	25.6	1.5	27.1
독립대리점	11	36.4	47.4
증권브로커	31.8	3.9	35.7
기타	2.4	7.4	9.8
소계	133.5	90.9	224.4

모집채널별 미국 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2003~2004)

전년 동기에
비해 FP와
독립대리점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수입이 성장

모집채널	변액연금	정액연금	소계
은행	1%	-10%	-6%
경력설계사	4	-7	1
직접채널	3	13	3
FP	17	-12	15
독립대리점	6	18	15
증권브로커	-4	-15	-5
기타	-25	14	1
소계	3	2	3

○ 2003~2004년의 연금 수입보험료는 FP와 독립대리점 채널을 사 용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2005.

(이정환 연구원)

2. EU 동향

Swiss Re 유럽
자동차시장
분석, 발표

- Swiss Re는 유럽 15개국의 2002년 자동차보험시장을 분석하고 각국의 1990년에서 2003년간의 고도장해보험금(Severe personal injury claim)의 진전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2002년 유럽 자동차보험 동향>

- 자동차배상보험(MTPL, Motor Third Party Liability)을 중심으로 2002년 기준 자동차보험시장의 주요 자료를 비교함.
- 각국 보험협회 또는 유사기관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분석하여 차량대수, 차량밀도, 평균보험금, 손해빈도, 평균배상금과 손해를 등을 비교함.

유럽 자동차시장 지표

(단위 : 명, %)

구분	차량밀도*	MTPL비중**	MTPL침투율***	도로사망율****
체코	1.9	61	2.1	2.7
덴마크	2.3	39	0.9	2.0
핀란드	1.5	56	0.6	1.2
프랑스	1.6	42	0.9	1.9
독일	1.5	63	1.0	1.3
이태리	1.2	85	1.9	1.4
노르웨이	1.6	39	0.7	1.1
폴란드	2.5	56	1.7	3.8
스페인	1.5	60	1.6	1.9
스웨덴	1.8	46	0.5	1.1
영국	1.9	45	1.7	1.1

자료 : Swiss Re, *European motor markets*, 2005.

* 차량밀도 : 차량당 이용자수

** MTPL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

***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차량 만대당 도로사망자수

유럽의
차량밀도는
1.7로 미국의
1.3이하와
대조

- 차량밀도는 유럽 전체로 1.7 정도며, 미국이 1.3이하인 것과 대조됨.
 -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장 낮은 차량밀도를 보였으며, 이태리는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의해 차량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MTPL과 MOD(차량손해보험료, motor own damage)의 합계보험료비율은 독일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오스트리아는 단지 30%였음.
- MTPL 보험침투율(MTPL insurance penetration)은 이태리를 포함한 중유럽과 동유럽국가에서 높았음.
- 도로사망율은 중유럽과 동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스웨덴같은 국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여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이 같은 차이는 인프라의 차이 즉, 도로의 질, 긴급서비스 등과 평균차량의 품질, 그리고 각국의 특정 행동유형(안전띠의 착용 여부, 음주운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03년 유럽 고도장해보험금추이>

□ 체코

- 1990년~1998년 : 물가상승요인은 거의 없었으며, 임금 상승에 따라 고도장해보험금비용이 약 40%가 증가함.
- 1998년~2003년 : 5년간 증가요인은 임금의 상승이었지만 후반 2~3년간에는 고통배상금이 증가하였음.

□ 덴마크

- 1990년~1998년 : 물가상승요인은 없었으며, 고도장해보험금증가는 평균임금인상률 이하였음. 이는 보상(compensations)이 덴마크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임. 이 기간 고도장해보험금은 약 8% 증가함.

- 1998년~2003년 : 이 기간 상당한 인플레이가 있었으며,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보상금, 특히 소득손실보상금이 상당히 증가함.

□ 핀란드

- 1990년~1998년 : 임금상승율을 초과한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약 3%였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은 약60% 증가함. 인플레이션 외에 간병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연금에 대한 예정이자율이 1994년 5%에서 4.5%, 1997년 4.5%에서 4%로 인하되었음.
- 1998년~2003년 : 이기간 초과인플레이션은 크지 않았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은 18% 증가함.

□ 프랑스

**프랑스,
기초율변에
따라
보험금상승**

- 1990년~1998년 : 초과인플레이션율은 약 4%였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은 약 60%가 증가함. 주요 요인은 연금에 대한 기준변경이 있음.
 - 즉, 1996년 새로운 사망률표가 도입되었으며, 예정이율이 4.75%에서 3.5%로 낮아짐. 또한 상당한 의료비인상이 있었음.
- 1998년~2003년 : 임금인상에 의한 간병비의 증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보조비가 증가했음.
 - 결과적으로 초과인플레이션율은 약 4%로 고도장해보험금이 약 50% 증가함.

□ 독일

**독일,
강제장기간병보
험의 도입으로
보험금증가**

- 1990년~1998년 : 연간 초과인플레이션율은 3%였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은 약 65% 증가함.
 -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5년 강제적인 장기간병보험의 도입됐다는 것과 의료처치비용과 장기간병비의 초과상승이 있었다는 것임.

- 1998년~2003년 : 전기의 증가요인이 지속되었으며 보조비용의 증가예상과 함께 저금리에 기인해 연금기초율이 재조정되어 인상됨.
- 초과인플레는 연간 8%로 1998년에 비해 총보험금이 60% 증가함.

□ 이태리

**이태리,
새로운
위험률도입과
간병비상승에
따라
보험금증가**

- 1990년~1998년 : 연간 초과인플레이션율이 약 13.8%였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이 약 280% 증가했음.
- 인플레이션외에 “danno biologico”(기타비용으로 분류)와 “danno morale”(고통배상금) 계산에 새로운 위험률표가 도입되고 간병급부의 증가가 상승원인임.
- 1998년~2003년 : 전기 기타비용과 고통배상금의 증가가 원인으로 기타 요인은 간병급부의 증가임.
- 연간 초과인플레이션율은 3.0%로 1998년에 비해 보험금이 28% 상승함.

□ 노르웨이

**노르웨이,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보험금변동**

- 1990년~1998년 : 연간 초과인플레이션율이 약 8%였으며, 이 기간 고도장해보험금은 약 150% 증가함.
- 이외에 소득손실에 대한 사회보장에서 지급되는 분담금이 줄어들어 보험회사의 지급금을 증가시켰고 1993년 사회보장제도의 보조비의 비급여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분담금이 인상되었음.
- 또한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통배상금이 증가함.
- 1998년~2003년 : 이 기간 지급배상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보조비의 상승이었으며, 법정판결에 의한 간병비용도 상당히 상승했음.

- 노르웨이에서는 간병비의 상당부분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분담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음.
- 폴란드
 - 1990년~1998년 : 초과인플레이션율은 약 1%였으며, 고도장해 보험금은 약 85% 증가했음.
 - 1998년~2003년 : 이 기간 주요 상승요인은 임금상승이었으며 후반 2~3년에는 고통배상금이 상승했음.
 - 초과인플레이션율은 연간 2%였으며, 이에 따라 1998년에 비해 보험금이 50% 증가함.
- 스페인
 - 1990년~1998년 : 법제판결의 극심한 다양성에 기인하여 동기간의 추세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함.
 - 1995년 이후에나 전국적 계산기반(baremo)이 생겼으며 현재 소득손실에 널리 이용됨.
 - 1998년~2003년 : baremo에 의해 매우 낮은 연간 2%의 초과인플레이션만이 관측되며, 이것은 1998년~2003년 28%의 보험금 상승과 일치함.
- 스웨덴
 - 1990년~1998년 : 초과인플레이션율은 0%였음. 보험금은 연간 약 35% 상승했으며, 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의 변화에 기인함.
 - 1998년~2003년 : 1999년 사회보장분담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하락함.
 - 한편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소득손실비용을 상승시킴. 더구나 새로운 “불법행위배상책임법”에 의해 보험금이 증가함.

- 초과인플레이션율은 연간 2%이상이었으며 1998년에 비해 보험금이 거의 30% 증가함.

□ 영국

영국, 인플레이션, 간병비용증가, 연금기초율변화로 보험금증가

- 1990년~1998년 : 초과인플레이션율이 연간 7%였으며, 고도장해보험금은 150% 증가했음.
- 인플레이션외에 간병비용이 상당히 증가했고 연금에 생명표(Ogden tables)가 도입되었으며, 4.5%에서 3%로 예정이율이 낮춰진 것이 원인임.
- 1998년~2003년 : 전기의 상승요인들이 계속 영향을 미쳤으며, Damages Act에 의해 이자율이 2.5%로 낮춰짐.
- 따라서 1998년 비해 초과인플레이션율이 연간 10%임에 따라 100%의 고도장해보험금의 증가가 있었음.

* 자료 : Swiss Re, *European motor markets*, 2005.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일본 동향

<일본, 금융개혁 프로그램 추진>

**일본
금융시스템,
안정에서 활력
중시로 전환**

- 일본 금융시스템은 “금융재생프로그램”의 실시 등에 의해 불량 채권의 회수대책에서 탈피하여 장래 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중시한 금융행정에서 “금융시스템의 활력”을 중시한 금융행정으로 전화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음.
- 또 금융의 IT화 진전, 경제사회전체에의 인터넷 처리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고령화·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개혁
프로그램 필요**

- 최근의 고령화,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대응하여 일본 경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개혁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래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모습으로는 금융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필요이상의 코스트를 투입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이상적임.
- 즉, 편리성, 가격우위성, 다양성, 국제성, 신뢰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손쉽게 용이하게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금융시스템을 말함.
- 향후의 금융행정은 ‘안정’에서 ‘활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官’의 주도가 아닌 ‘民’의 힘으로 실현될 수 있

도록 해야 함.

**5가지 논점에서
금융개혁
프로그램 추진**

- 금융개혁의 프로그램은 이하의 5가지 논점에서 향후 진행해야 하는 개혁의 내용을 정리함.
 - ① 민간활력을 찾고 이용자 편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와 이용자보호를의 정비 철저(이용자 니즈의 중시와 이용자보호를의 철저
 - ② IT의 전략적 활용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 시장 인프라 정비
 - ③ 국제적으로 열린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금융행정의 국제화
 - ④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 ⑤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신뢰있는 금융행정의 확립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행정당국의
요구 자세 명시**

- “금융서비스”를 국민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전환을 계기로 금융행정당국의 기본적인 자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정당국의 기본적 자세로는 이하의 사항이 요구됨.
 - ① 금융행정은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심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
 - ② 이를 위해 현행 규제를 총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행정의 행동규범을 확립할 것
 - ③ 한편,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보호를의 정비
- 금융개혁 프로그램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금년도내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스케줄 “공정표”를 책정하여 공표할 예정임.

<구체적 시책>

활력있는
금융시스템,
지역경제에
이바지,
신뢰받는
금융행정 확립
등 구체적 시책
마련

- 활력있는 금융시스템의 창조
 - 이용자 니즈의 중시와 이용자보호제도의 철저
 - 다양하고 양질의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 설계
 - 금융실태에 대응한 이용자보호를 등의 정비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상담시스템의 충실
 - Pay off 解禁 확대의 원활한 실시
 - IT 전략적 활용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기관 인프라 정비
 - IT의 전략적 활용
 - 시장기능의 충실과 시장신뢰성의 향상
 - 금융기관 지배구조 향상과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 촉진
 - 국제적으로 개방된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금융행정의 국제화
 - 금융의 국제화·구조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구축
 - 금융시장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 금융행정의 국제화와 국제적인 규칙 마련에 적극적 참가
-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 지역의 재생·활성화,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 중소·지역금융기관의 경영력 강화
- 신뢰받는 금융행정의 확립
 -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 행정의 전자화 등에 의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행정의 추진

* 자료 : 日本 金融廳, “金融改革プログラム”, 2004.12.

(조혜원 선임연구원)

<금융청, 보험업법 위반으로 메이지야스다생명 2주 업무정지 명령>

금융청,
보험업법
위반으로
메이지야스다
생명
업무정지명령

213건의
보험금지급
요청계약 중
162건은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함

- 일본 금융청은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 둘러싼 위법모집과 본사와의 지급판단 기준의 차이 등 보험업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2주일간 개인대상 보험계약의 모집을 금지하는 ‘업무정지명령’을 내렸음.
- 금융청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받은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속출하여, 2004년 11월부터 동사의 조사를 하였음.
 - 합병이전 1999년4월부터 9월까지 213건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그 중 162건(15억 2,200만엔)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했던 계약인 것으로 드러남.
 - 보험약관상에는 불고지내용이 가입 후 2년내에 판명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입후 2년이 경과했어도 고지의무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사기 무효’의 규정을 적용,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함.

고지의무위반과 사기무효에 의한 계약해지 비교

구분	고지의무위반	사기 무효
적용대상	건강상태의 고지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 위법성이 극히 큰 경우 - 고지의무위반의 내용이 특히 중대한 경우
환급금	해약환급금	없음
계약해제 행사기간	가입 후 2년간	가입 후 2년이 경과해도 행사 가능

**고지에 관한
부적절한
모집행위와
사기무효
조항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미지급**

- 본사 지급부문에서는 계약시 설계사가 부정한 모집수단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대해 '사기 무효'를 적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보험금 지급 요청계약 중 213건을 중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동 계약을 사기무효로 처리함.
- 고지에 관한 부적절한 모집행위(61건)로는 설계사가 모집시에 고객과 면접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등임.
- 저축성이 크고 사기적인 행위가 작용하기 어려운 일시납 양로 보험의 계약(101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후 조치로
보험금전액
지급과 관련
책임자 문책,
내부통제
기능 강화
약속**

- 사후조치로 본건 162건에 대하여 총액 15억 2,200만엔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임.
- 또한, 과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해당 보험회사는 사장을 포함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경영층의 관리기능 충실 강화, 모집관련 자료의 개정, 임직원 및 영업직원 교육 및 연수 강화 등을 발표함.

(신동현 연구원)

4. 중국 동향

<중국, 2004년 생보시장 성장 둔화, 손보시장 급속한 성장>

- 중국 생명보험 :** □ 2004년 생명보험 시장은 전년 대비 7.2% 성장하였고, 손해보험시장은 전년 대비 25.3% 성장한 반면,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7.2% 증가
- 중국 손해보험 :** 1,00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함. 25.3% 증가
- 생명보험 시장은 보험사 구조조정과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손해보험 시장은 자동차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로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함.

중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위안)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생명보험	1,424	42.8%	2,275	59.8%	3,010	32.4%	3,228	7.2%
손해보험	685	14.6%	778	13.6%	869	11.7%	1,089	25.3%
전 체	2,109	32.1%	3,053	44.8%	3,879	27.1%	4,318	11.3%

생보 상위3사 :
75% 점유율 차지

- 200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75%를 상위3사인 중국생명보험공사, 중국평안보험공사, 중국타이핑양생명보험공사가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중국인수 1,497억 위안(46.9%), 평안인수 549억 위안(17.2%), 태평양인수 345억 위안(10.8%)임.

손보 상위3사 :
88% 점유율 차지

- 2004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88%를 상위3사인 중국인민보험공사, 태평양보험공사, 평안보험공사가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중국인민보험공사 653억 위안 (58%), 태평양보험공사 138억 위안 (12.3%), 평안보험공사 106억 위안(9.4%)임.

**외국사의
생보시장
점유율 : 2.3%
손보시장
점유율 : 1.1%**

-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2004년 상반기 중 중국의 자국 생보사 시장점유율은 97.7%, 손보사는 98.9%를 차지함.
- 외국계 생명보험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AIG 그룹이, 외국계 손해보험 시장은 일본계 보험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중국 자국사의
생보시장
점유율 : 97.7%
손보시장
점유율 : 98.9%**

- 2.3%의 외국계 생보사 점유율 중 AIA는 1.26%, Aetna가 0.18%, Prudential이 0.18%를 차지함.
- 1.1%의 외국계 손보사 점유율 중 AIU는 0.35%, 東京海上이 0.16%, 三井住友海上이 0.09%를 차지함.
- 2005년 중국보험시장은 20개의 자국사가 추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40개 외국사(73개 지점)와 시장점유율 경쟁이 가속화됨.
- 중국인민건강보험공사(최초의 건강보험전문사)를 포함한 4개의 건강보험사, 텐펑자동차보험공사(최초 자동차보험전문사)를 포함한 5개의 손보사, 국민인수를 포함한 8개의 생보사, 1개의 자산관리공사(양광재산보험)가 신설됨.
- 이들 20개 국내사는 8년 동안 영업허가증을 신청조차 못하였으나, 2004년 말 외국인 제한 철폐가 이루어지면서 역차별이라는 여론 속에 진출이 가능해 짐.

**일본 손보사
2004년 중국내
영업망 확대**

- 일본 손보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2004년 동안 미국과 버금가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주재 일본계 손보사의 수는 30여개로 이는 중국주재 미국계 손보사의 수와 비슷함.
- 도쿄해상, 미쓰이 스미토모 등은 상해와 대련에 분지점을 설립하고 현재의 분공사 지위를 자회사 격상을 신청함.

* 자료 : 상해증권보/제일제경일보/북경현대상보/심천상보 등

(이정환 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3		CY200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2.3	4.1	5.3	5.5	4.7	3.3	
경상수지	3,670	7,263	6,131	7,030	7,098	7,354	
수 출	47,828	56,901	59,299	63,975	61,634	68,937	
수 입	42,981	49,922	52,798	55,270	54,708	61,688	
실업률	3.3	3.4	3.8	3.3	3.4	3.4	
금리	국고채(3년)	4.11	4.82	4.50	4.24	3.53	3.28
	회사채(3년)	5.05	5.58	5.30	4.84	4.03	3.72
소비자물가지수	110.8	111.7	113.4	114.2	115.6	115.5	
환율	원/달러	1,150.10	1,192.6	1,146.6	1,155.5	1,151.8	1,035.1
	엔/달러	111.79	106.99	105.84	108.69	110.9	103.76
종합주가지수	697.52	810.71	880.50	785.79	835.09	895.92	
외환보유고	141,535	155,352	163,557	167,030	174,448	199,066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3		CY2004			
	3/4	4/4	1/4	2/4	3/4	4/4
보 험	47,189	88,743	48,649	64,808	71,449	94,002
생명보험	34,893	74,824	37,604	48,549	54,862	75,500
손해보험	12,296	13,919	11,045	16,259	16,587	18,502
은 행	-30,594	189,814	-67,109	37,239	-1,871	-28,410
일반계정	1,512	221,476	-11,707	40,699	19,734	-13,394
신탁계정	-32,106	-31,662	-55,402	-3,460	-21,605	-15,016
증 권	-6,525	5,843	-5,145	5,049	-1,427	-11,172
투 신	63,286	-178,020	170,435	-14,380	136,801	148,323
중 금	-21,375	-38,056	-20,816	7,090	940	-18,256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 존 보 험	보험료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32,542
	성장률	20.0	56.8	16.0	26.5	18.3	17.4	-12.1
	구성비	23.1	23.9	23.4	23.0	23.3	24.6	20.9
사 망 보 험	보험료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64,497
	성장률	6.3	7.0	9.7	8.3	11.2	12.9	11.8
	구성비	48.8	37.3	49.9	45.5	51.0	49.9	41.4
생사혼합 보 험	보험료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20,279
	성장률	-14.5	-9.5	-18.7	-14.4	-14.6	-11.8	-22.4
	구성비	20.0	16.9	18.2	18.8	16.5	16.0	13.0
변액보험	보험료	1,136	3,210	2,356	7,621	2,785	3,293	6,256
	성장률	682.7	372.6	122.5	285.7	202.8	189.9	94.9
	구성비	1.0	2.1	2.0	1.5	2.3	2.6	4.0
개 인 보 험계	보험료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123,574
	성장률	4.8	15.8	5.1	7.6	8.7	10.6	-0.4
	구성비	92.9	80.1	93.6	88.7	93.2	93.1	79.4
단 체 보 험	보험료	8,094	30,836	7,725	56,764	8,262	8,769	32,158
	성장률	-33.1	-19.6	-10.3	-24.5	-18.3	8.3	4.3
	구성비	7.1	19.9	6.4	11.3	6.8	6.9	20.7
전 체	보험료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55,732
	성장률	0.7	6.5	3.9	2.7	6.3	10.4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 보 존 험	지급보험금	13,687	15,399	17,556	60,247	15,433	15,680	18,243
	증가율	12.7	22.9	6.8	14.5	13.4	14.6	18.5
	지급률	51.5	41.6	62.3	52.1	54.6	50.3	56.1
사 보 망 험	지급보험금	17,795	19,077	20,773	74,428	20,345	21,657	23,811
	증가율	30.2	34.7	30.7	34.4	21.2	21.7	24.8
	지급률	31.8	33.1	34.6	32.5	32.9	34.3	36.9
생 사 혼 합 보 험	지급보험금	31,324	28,627	26,875	120,173	25,356	23,603	25,595
	증가율	40.0	16.1	-24.0	15.4	-24.0	-24.6	-10.6
	지급률	136.3	109.5	122.6	127.2	126.6	116.5	126.2
변 액 보 험	지급보험금	106	206	324	706	399	404	635
	증가율	3143	757	2382	1589	468.5	283.1	207.9
	지급률	9.3	6.4	13.7	9.3	14.3	12.3	10.2
개 인 보 험 계	지급보험금	62,911	63,310	65,528	255,554	61,534	61,344	68,284
	증가율	30.6	23.2	-3.2	20.4	-3.6	-2.5	7.9
	지급률	59.0	51.0	58.2	57.2	54.5	52.0	55.3
단 체 보 험 계	지급보험금	12,639	16,793	17,103	61,840	11,101	10,492	11,948
	증가율	-12.5	-45.8	-1.5	-24.6	-27.5	-17.0	-28.9
	지급률	156.2	54.5	221.4	108.9	134.4	119.7	37.2
전 체	지급보험금	75,550	80,103	82,631	317,394	72,635	71,836	80,232
	증가율	20.6	-2.8	-2.9	7.9	-8.2	-4.9	0.2
	지급률	65.8	51.7	68.7	63.0	59.9	56.7	51.5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사업비	3,269	4,187	3,564	14,118	3,377	3,623	3,725
	증가율	-2.1	9.1	-0.6	-0.2	9.0	10.8	-11.0
	사업비율	12.3	11.3	12.6	12.2	11.9	11.6	11.4
사망보험	사업비	14,764	15,913	16,504	61,705	15,836	16,112	16,208
	증가율	-2.9	0.1	8.5	2.2	9.0	9.1	1.9
	사업비율	26.4	27.6	27.5	26.9	25.6	25.5	25.1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1,739	2,188	2,009	7,647	2,078	3,176	4,291
	증가율	-9.6	-6.0	7.0	-5.8	21.4	82.6	96.2
	사업비율	7.6	8.4	9.2	8.1	10.4	15.7	21.2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증가율	-	-	-	-	-	-	-
	사업비율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19,773	22,288	22,077	83,470	21,291	22,910	24,225
	증가율	-3.4	1.0	6.8	1.0	10.1	15.9	8.7
	사업비율	18.5	18.0	19.6	18.7	18.9	19.4	19.6
단체보험계	사업비	653	714	750	2,732	572	605	706
	증가율	16.4	2.2	1.9	6.4	-6.9	-7.3	-1.1
	사업비율	8.1	2.3	9.7	4.8	6.9	6.9	2.2
전체	사업비	20,426	23,002	22,827	86,202	21,863	23,516	24,931
	증가율	-2.9	1.1	6.6	1.2	9.6	15.1	8.4
	사업비율	17.8	14.8	19.0	17.1	18.0	18.6	16.0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61	881	692	3,160	763	664	825
	성장률	0.9	-3.1	-7.7	-1.8	-7.5	-12.8	-6.4
	구성비	1.4	1.5	1.3	1.5	1.4	1.2	1.3
해 상	보험료	1,385	1,151	1,310	5,242	1,263	1,410	1,263
	성장률	-0.2	-11.0	-7.6	-6.5	-9.5	1.8	9.7
	구성비	2.6	2.0	2.5	2.5	2.3	2.5	2.0
자동차	보험료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21,528	21,991
	성장률	-1.2	-1.1	7.3	0.6	10.1	4.2	8.3
	구성비	39.2	35.7	37.2	37.2	37.4	37.7	35.3
보 증	보험료	2,261	2,259	2,475	9,419	2,353	2,179	2,218
	성장률	1.2	-6.4	-2.2	0.6	-2.9	-3.6	-1.8
	구성비	4.3	4.0	4.7	4.4	4.2	3.8	3.6
특 종	보험료	4,454	5,140	3,933	18,073	5,083	5,088	5,691
	성장률	3.1	10.7	13.3	8.0	11.8	14.2	10.7
	구성비	8.4	9.0	7.4	8.5	9.1	8.9	9.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	163	173	628	208	214	188
	성장률	27.3	11.9	13.3	11.4	51.9	38.4	15.3
	구성비	0.3	0.3	0.3	0.3	0.4	0.4	0.3
장 기	보험료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23,553	24,710
	성장률	6.5	7.2	6.5	7.1	9.2	12.2	13.3
	구성비	39.8	38.3	41.8	40.1	40.9	41.3	39.7
개 인 연 금	보험료	1,705	1,716	1,748	6,873	1,746	1,680	1,695
	성장률	1.3	0.9	0.4	1.3	2.5	-1.5	-1.3
	구성비	3.2	3.0	3.3	3.2	3.1	2.9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388	3,488	751	4,949	686	715	3,642
	성장률	37.6	17.0	-14.6	12.4	113.2	84.3	4.4
	구성비	0.7	6.1	1.4	2.3	1.2	1.3	5.9
계	보험료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62,222
	성장률	2.6	3.6	5.6	3.8	9.0	8.1	9.3

주 : 1)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3.9	61.6	61.7	52.7	58.8	54.8
	사업비율	47.1	48.4	56.0	57.2	54.7	55.6
	합산비율	111.0	110.0	117.7	109.8	113.5	110.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3.6	57.4	57.7	61.3	51.3	49.3
	사업비율	30.4	34.2	36.4	34.2	31.5	32.7
	합산비율	84.0	91.6	94.1	95.5	82.8	82.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4.8	75.8	76.7	71.6	72.3	72.7
	사업비율	30.3	30.9	31.3	30.3	31.2	31.8
	합산비율	105.1	106.7	108.0	102.0	103.5	104.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0.1	23.8	44.1	46.6	27.6	21.9
	사업비율	7.3	7.7	10.3	6.8	16.6	16.2
	합산비율	17.4	31.5	54.4	53.4	44.2	38.1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0.9	51.0	57.8	43.1	47.4	46.5
	사업비율	23.4	23.4	23.2	22.1	22.5	25.0
	합산비율	74.3	74.5	80.9	65.2	69.9	71.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7.7	48.5	47.5	13.2	44.3	49.4
	사업비율	76.9	76.4	80.5	22.2	83.0	89.8
	합산비율	124.6	124.9	127.9	35.4	127.3	139.2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5	81.3	72.4	85.9	86.6	87.1
	사업비율	22.8	21.4	19.4	15.9	15.8	15.7
	합산비율	103.3	102.7	101.9	101.7	102.4	102.8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5.6	116.1	121.8	117.9	118.4	118.1
	사업비율	10.9	10.5	9.7	9.9	10.4	10.4
	합산비율	126.5	126.7	131.5	127.8	128.8	128.5
전 체	경과손해율	73.8	75.2	77.6	76.1	76.6	76.6
	사업비율	25.2	24.8	24.3	21.8	22.6	23.0
	합산비율	99.0	100.1	101.9	97.9	99.2	99.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성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점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 2004.2
- 2004-2 보험회사의 방키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2004.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10
- 2004-13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5.2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2005년 4월 4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